

기장 오리 신리 요지 편년연구

허 선 영*

〈목 차〉

- I. 머리말
- II. 오리 신리 요지의 개요와 도자편 분석
- III. 편년유물을 통해 본 제작시기의 검토
- IV. 맺음말

국문요약

부산광역시 동북쪽에 위치한 기장군에서 도예촌 조성과 관련하여 2007년 2월부터 7월까지 지표조사가 이루어졌다. 이 조사에서 장안읍 일대를 중심으로 청자요지 2곳, 분청사기요지 1곳, 백자요지 1곳, 옹기요지 2곳과 정관면에서 백자요지 1곳 등 모두 7개 지점에서 도요지 관련유적이 확인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 중 기장군 장안읍에 위치한 오리 신리 요지에서는 한국 도자사 연구에 있어 중요한 자료인 14세기 대에 상감청자대접의 주요한 문양으로 등장하는 蓮唐草文을 비롯해 柳文·蘆文·雨點鶴文 등이 새겨진 도자편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기장 오리 신리 요지는 후대의 인위적인 훼손으로 인해 현재 가마 유구의 현상 파악은 어려우나 지표조사에서 수습된 다량의 도자편 분석을 통해 이들 유적에 대한 편년연구가 가능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오리 신리 요지의 제작시기를 추정해 볼 것이다. 먼저, 요지 도자편의 기종과 기형, 문양, 제작수법을 면밀하게 검토해 보았다. 확인된 기종은 대접과 접시가 중심을 이루고, 그 외 기타 도자편과 요도구 등도 확인되었다. 문양은 도자편의 크기가 대체로 작아 전체적인 문양구성을 살피는 데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일반적인 문양 구성과 위치에 근거하여 주문양과 종속문양으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제작수법에서는 유태와 굽의 깎음새, 번조수법은 갑변인지

* 경남문화재연구원

포개구이 번조인지에 대한 여부와 받침은 어떠한 것이 사용되었는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요지의 조성시기는 절대연대를 가지는 유물과의 비교 즉, 간지명·관아명·능명·연호명 청자 편년유물의 기형(각접시, 돌기문접시) 혹은 문양(연당초문, 변형당초문, 유문, 노문, 우점학문)과의 비교를 통해 제작시기를 가늠하였다. 그 결과 오리 신리 요지는 1350~1370년대 사이에 요업이 시작되었다.

지금까지 기장지역 도요지와 도자에 대한 조사연구가 정식으로 학계에 보고된 적이 없는 상황에서 이 지역의 연구는 지역 도자사 연구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주제어 : 기장, 오리 신리, 연당초문, 유문, 노문, 우점학문

I. 머리말

지금까지 도자사 연구는 청자의 경우, 초기 청자의 발생과 간지명 청자의 제작시기에 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고, 분청사기는 『세종실록지리지』의 도기소·자기소의 실체, 관사명 분청사기의 사용시기, 그리고 기종과 기형, 문양을 둘러싼 제작시기 등에 대한 연구들이 주목된다. 그리고 백자는 조선 광주 관요의 설치시기, 관요가 운영되었던 가마에 대한 편년연구 등이 중심을 이루었다. 각 시대별로 자기 생산의 중심이 되었던 지역과 유물에 대한 연구 경향으로 인해 지방 도자사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었다.

분청사기의 지역별 연구는 충청도 지역이 비교적 많이 진행되었다.¹⁾ 전라도 지역은 한국인 학자의 주도하에 첫 학술발굴이 이루어진 광주 충효동 가마터에서 안정된 층위가 발굴됨에 따라 분청사기의 변화양상 연구에 많은 자료를 제시해 주었고, 이를 중심으로 많은 연구 성과가 이루어졌다. 이에 비해 경상도 지역은 『세종실록지리지』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타 지역에 비해 자기소·도기소의 제작지가 많이 분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 및 연구된 사례가 미비한 편이었으나 2000년도를 전후하여 경상도 지역 중심연구논문이 몇 편 소개되었다. 논문주제는 『세종실록지리지』에 기록된 자기소로 추정되는 지역이 중심이고, 그 외 고분출토 고려청자와 조선전기 지방백자에 대한 도자사 논문이다.²⁾

1) 강경숙, 1986, 『분청사기연구』, 일지사; 同著, 1991, 『분청사기 연구현황』, 『고고미술사론』2, 충북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同著, 1993, 『연기 송정리 분청사기 대접-문양분석과 제작시기 시도』, 『미술사학연구』197, 한국미술사학회; 同著, 1993, 『초기 분청사기가마터 분포에 대한 일고찰』, 『태동고전연구』10, 태동고전연구소; 同著, 1994, 『세종실록 지리지 자기소·도기소 연구-충청도를 중심으로』, 『미술사학연구』202, 한국미술사학회; 同著, 1997, 『세종실록 지리지 자기소 기록에 있는 자기소 도자편의 특징-경기도와 충청도 5곳 가마터를 중심으로』, 『고고미술사론』5, 충북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강경숙·남진주, 2003, 『충주지역 도자의 역사와 문화』, 『증원문화 논총』, 충북대학교 증원문화연구소; 이애령, 1993, 『인화기법 분청사기의 변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석사학위논문; 정상기, 2006, 『충청지역 도자 연구』, 서경문화사; 안세진, 2006, 『공주 학봉리 철화 분청사기 연구』, 고려대학교석사학위논문.

2) 전승장, 1996, 『15세기 도자소 고찰-경상북도 상주지역의 변화과정을 중심으로-』, 『호암미술 관련논문집』1호, 호암미술관; 심지연, 2003, 『경주 서부동 출토 관사명 분청사기 연구』, 동아대학교석사학위논문; 조윤주, 2003, 『관사명 분청사기 연구-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동아대학교석사학위논문; 성현주, 2003, 『사천시 곤양면 송전리 포곡요지의 성격 검토』, 『박물관연구』9호, 부산박물관; 同著, 2006, 『경상도 지역 “명문”분청사기 연구』, 부산대학교석사학위논문; 박경자, 2003, 『14세기 강진 자기소의 해체와 요업체제의 이원화』, 『미술사학연구』23 8·239, 한국미술사학회, 109~147쪽; 김윤희, 2004, 『경남지방 조선전기 백자연구-하동 백련리 출토 백자를 중심으로-』, 동아대학교석사학위논문; 이상희, 2005, 『고려분묘 출토 녹청자의

이렇게 경상도 지역의 도자사적 성과가 부족한 상황에서 지난 2007년 2월 부터 7월까지 기장군의 도예촌 조성과 관련하여 지표조사가 이루어졌다.³⁾ 이 조사에서 장안읍 일대를 중심으로 청자요지 2곳, 분청사기요지 1곳, 백자요지 1곳, 옹기요지 2곳과 정관면에서 백자요지 1곳 등 모두 7개 지점에서 도요지 관련유적이 확인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중 기장군 장안읍에 위치한 오리 신리 요지에서는 한국 도자사 연구에 있어 중요한 자료인 14세기 대에 상감청자대접의 주요한 문양으로 등장하는 蓮唐草文을 비롯해 柳文·蘆文·雨點鶴文 등이 새겨진 도자편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세 곳의 요지는 후대의 인위적인 훼손으로 인해 가마 유구의 현상 파악은 어려우나 지표조사에서 수습된 다량의 도자편 분석을 통해 이들 유적에 대한 편년연구가 가능하며, 부산·경남지역 도자사 연구에 기여하는 바가 높다고 판단되어 논문의 주제로 삼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기장지역의 오리 신리 요지 도자편에 대한 제작시기를 밝히는데 초점을 두어 글을 전개하고자 한다.

II. 오리 신리 요지의 개요와 도자편 분석

본 장에서는 오리 신리 요지의 위치와 유적의 잔존상태, 자연적 위치 등을 살펴볼 것이다.

조사 결과, 요지는 모두 현상변경 되어 유구의 확인은 어려운 상태이나 가마의 일부로 보이는 벽체 편과 조업활동을 짐작하게 해주는 요도구와 함께 포개구이 된 도자편 등, 다양한 유물이 확인되어 요지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수습된 유물의 특징을 살펴 유적의 성격을 추정하는 단서로 삼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 본 장에서는 도자편의 기종과 기형, 문양, 제작수법 등을 분석 할 것이다.

1. 요지의 개요

부산-울산간 국도 14호선의 동편에 있는 장안초등학교를 지나 하근교를 건너면 신리마을로 향하는 길이 나온다. 이 도로를 따라 들어가면 신리마을버스정류장이 나오고, 이 정류장의 길 건너편 동쪽에 위치한 구릉의 사면과 이와 인접한

편년연구-영남지방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석사학위논문; 장동철, 2007.06, 『상주시 모서면 대표리 요지연구』, 한국미술사학회 월례발표회요지문.

3) 경남문화재연구원, 2007, 『기장도예촌 조성을 위한 장안읍 일대 정밀지표조사』



<지도 1> 오리 신리 요지의 위치

<삽도 1> 오리 신리 요지의 전경

논 일대에 유물이 분포한다.(지도 1·4) 요지는 신리마을에 위치하는데 이 마을은 五里에 속한 마을 중 하나로 주변의 長安里, 奇龍里, 盤龍里와 접해 있고, 마을 일대는 낮은 구릉지대이며 신리마을과 개천마을 사이에 흐르는 효암천의 물줄기가 흘러들어 신리마을의 新里池로 들어온다. 요지는 북동쪽에서 남서쪽으로 뻗어 내린 구릉의 사면에 위치하며 구릉은 해발 126.0m 정도에 위치하고, 구릉 앞으로는 넓은 들과 신리못이 위치하고 있어 柴木과 물의 공급이 용이하다.

현재 구릉의 남쪽에는 논과 밭이 조성되어 있으며 일부는 인근에 위치한 금산사의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논과 밭이 조성된 곳보다 높은 구릉의 사면에는 민묘가 조성되어 있는 등 현상변경 된 상태이다. 기장군 문화유적분포지도 제작 당시의 조사 내용에서는, 사면의 단애면에 소토덩어리가 남아 있고 도로와 접한 구릉 말단부에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절토한 단애면과 바닥에서 점토흔이 남아있는 도지미, 다량의 청자와 초별구이한 도자편이 채집되었다고 한 점으로 보아 이곳이 가마터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⁴⁾

한편 요지의 남쪽으로는 ‘신리못’과 ‘망어들’이라고 하는 넓은 논이 펼쳐져 있는데 이 일대에서 도기편들이 수습되어 요지와 관련된 시설물이 위치하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⁵⁾

2. 도자편의 분석

1) 기종과 기형

오리 신리 요지에서 수습된 유물은 상감청자와 무문의 청자 외에도 분청사

4) 복천박물관, 2005, 『문화유적분포지도-기장군-』, 77쪽.

5) 복천박물관, 2005, 주4) 앞의 보고서, 77쪽.

기와 백자편, 도기편 등이 소량 확인되었다. 그리고 도지미, 가마 벽체편, 점토받침 등이 확인되어 이곳에서 요업이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오리 신리 요지에서 수습된 유물 중 전성기에 생산된 것으로 보이는 청자만을 선별하여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기종은 대접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접시가 많이 수습되었다. 그 외에 잔, 매병, 소호 등의 기종이 소량 확인되었다.

(1) 대접

대접은 용적률이 크고 기벽이 밖으로 크게 벌어지는 형태이다. 굽지름 5.5cm 이상이며 기벽이 두껍다. 수습되는 도자편 중 구연부편은 모두 내만하거나 직립하는 형태이다. 따라서 대접은 내저면의 형태에 따라 크게 I 형과 II 형으로 나누었다.(표 1)

I 형은 내저면의 형태가 곡면인 것으로 측사면과 바닥이 부드러운 곡선으로 이어지고, 굽 지름은 5.5~6.0cm 내외이다. 이를 다시 문양의 유무에 따라 A 식과 B 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A 식은 상감 혹은 인화기법을 사용하여 문양을 장식한 상감청자이고, B 식은 아무런 장식이 없는 무문청자이다. 오리 신리 요지에서는 I-B형식의 대접이 가장 많이 수습되었다.

오리 신리 요지의 대접은 내저면에 태토와 다른 붉은 색을 띠는 점토를 4개 정도 받쳐 포개구이하였고, 굽 안 바닥은 예리한 도구로 깨끗하게 정면하거나 도구가 아닌 손으로 눌러다진 경우가 몇몇 확인이 되며, 굽의 접지면은 대부분 굽은 모래받침이 부착되어 있다.

II 형은 내저면의 중앙에 원각이 돌아가는 형태이다. 내저원각의 크기는 굽경보다 작거나 같다. 구연의 형태는 수습되는 도자편의 상태로 보아 I 형과 동일한 것으로 판단된다. 굽경은 I 형보다 약간 큰 5.5~6.5cm 내외이다. II 형의 대접은 대부분 무문의 청자이고 초벌구이편에서 많이 확인된다. 그 수량은 I 형의 대접보다 적은 수가 수습되었다.

(2) 접시

접시는 대접에 비해 기고가 낮고 기벽은 얇으며, 내저면이 편평한 형태의 그릇이다. 측사면의 형태와 내저면의 형태에 따라 총 5형으로 분류하였다.(표 1)

I 형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형태로 내저면은 곡면식이며 대접에 비해 높이가 낮고 굽경은 5.5cm 이내이다. 수습된 구연부편으로 추정컨대 구연은 대접과 마찬가지로 내만 혹은 직립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오리 신리 요지에서는 확인되는 수량은 적은 편이다.

II 형은 원형소접시로 높이가 낮고 내저면은 편평하며 내저면에서 측사면으로 이어지는 부분은 도구를 이용하여 깎은 것이 아니라, 성형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게 꺾여 올라가는 형태이다. 외측선이 둥근 형태와 각이 진 형태가 있다. 굽경은 5.5~6.0cm 이고, 굽은 주로 다리굽으로 성형하였다.

Ⅲ형은 각접시로 도범을 사용하여 제작한 기형이다. 측사면은 사선형으로 벌어지며 구연은 직립한다. 기벽의 면수에 따라 팔각과 육각 등으로 나누어지기도 한다. 또한 어떠한 경우는 각이 거의 사라지고 외면에 선상감된 선으로만 면을 구획한 변형된 각접시도 나타난다. 기벽과 저부는 각을 이루며 굽경은 5.5cm 이내이다. 굽은 속굽과 다리굽의 형태로 나타난다.

각접시는 고려후기부터 면각이 둔중해지면서 상감기법을 통해 면을 구획하는 특징을 가지는데, 구획된 면에 국화문을 도장으로 찍거나 문양을 시문하지 않은 것들도 함께 확인되고 있다. 오리 신리 요지에서 수습된 각접시의 내면은 각이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으나 외면은 희미해지고 선상감으로 면을 분할하였다. 이러한 각접시의 형태는 고려 말을 기점으로 조선 초 분청사기에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하고 소멸해 간 대표적인 기형이다. 고려 말에 와서 그릇의 제작이 손쉽게 제작하는 방향으로 전환함에 따라 수공이 많이 가는 그릇은 점차 제작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⁶⁾

Ⅳ형은 종지형접시⁷⁾로 내저면은 편평하고 측사면은 거의 직사선으로 벌어지는 형태이며, 굽경은 5.5cm 이내이다. 오리 신리 요지에서는 굽의 형태가 외관상 드러나지 않는 속굽이 주로 나타나고 이 외에 다리굽도 확인된다.⁸⁾

V형은 돌기문 접시로 1점 확인되었다. 오리 신리 요지에서 수습한 돌기문 접시편은 극히 구연 일부로 돌기는 퇴화되어 흔적이 아주 희미하게 남아 있다. 돌기문 접시는 그릇의 외벽에 한 줄 또는 두 줄의 돌출된 대를 돌려 장식한 것으로 고려 후기에 나타나는 새로운 문양요소이다.⁹⁾ 호림박물관 소장 <청자상감운학문임신명접시>(1332년, 도 54)의 동체 외벽에 돌기문이 돌려져 있고, 14세기 후반으로 편년되는 강진 사당리 10호 요지(도 53)에서도 수습되고 있어 14세기 전반에 걸쳐 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¹⁰⁾ 이러한 돌기문은 고려후기 원대의 난백유자기 절요완과 관련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¹¹⁾

6) 이종민, 1994, 『14세기 후반 고려상감청자의 신경향-음식기명을 중심으로-』, 『미술사학연구』 201, 한국미술사학회, 15쪽.

7) 높이와 입지름은 팔각접시와 비슷하지만, 각이 없이 원형인 기형을 종지형 접시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기존에 기형구분 없이 쓰이던 접시를 두 종류로 분류하였다.(박경자, 2002, 『14세기 강진 자기소의 해체와 요업 체제의 이원화』, 충북대학교석사학위논문, 38쪽.)

8) 속굽은 강진 사당리 10호에서 주로 화형전접시와 종지형접시(측면사선형접시)에서 주로 사용이 되었고 다른 요지에서는 속굽의 제작량이 적다고 한다.(김현주, 2006, 『고려말 조선초 상감청자 연구』, 동국대학교석사학위논문, 85쪽.)

9) 이종민, 1994, 주6) 앞의 논문, 17쪽.

10) 해강도자미술관, 1992, 『강진의 청자요지』, 289쪽, 도7.

접시에 사용된 받침은 대접과는 달리 내면에는 받침의 흔적이 없고, 외면에 만 점토빚음을 받쳐 번조하였다. 이는 후술할 번조수법에서 다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3) 기타

대접과 접시 외에 잔, 호, 매병 등이 수습되었다. 잔은 1점 수습되었는데 구경은 약 7.5cm이고, 구연은 직립한다.(도 31) 유색은 진록색 계열이고 태토는 잡물과 사립이 다량 혼입된 점토가 사용되었다. 호는 구연부가 짧게 외반하는 형태의 소호로 태토는 비교적 양질이고 유색은 탁한 녹회색을 띤다. 그리고 매병은 동체부편으로 柳文이 흑백상감되어 있고, 대접과 마찬가지로 태토에서는 양질과 조질이 함께 나타난다.(도 14·15)

(4) 요도구

도지미는 그릇이 올려지는 상면에 비해 높이가 높은 주형(柱形)으로 완형이 아니라 전체적인 크기는 알 수 없다.(도 32)

<표 1> 오리 신리 요지 출토 대접과 접시의 기형 분류표와 특징

기형	번호	도면	특징
대접	I	A 도 1	내저곡면식, 구연은 내만형, 굽지름 5.5~6.0cm, 문양 있음.
		B 도 2	내저곡면식, 구연은 내만형, 굽지름은 5.5~6.0cm, 무문.
	II	도 3	내저원각식, 구연은 내만형, 굽지름은 5.5~6.5cm, 무문.
접시	I	도 5	내저면이 넓고 편평, 대접에 비해 높이가 낮음, 굽지름 5.5cm이하.
	II	도 6	내저면의 외곽선이 둥근 형태로 기벽과 저부는 각을 이룸, 굽지름 5.5~5.9cm.
	III	도 7	도범을 사용, 기면의 측사면이 각을 이룸, 면수에 따라 팔각 혹은 육각등으로 나뉘며, 기벽과 저부는 각을 이루며 굽지름 5.5cm이내, 속굽과 다리굽이 함께 나타남.
	IV	도 8	굽이 드러나지 않는 속굽과 다리굽이 함께 나타나 대부분이 속굽 형태, 측사면 직사선형, 굽지름 5.5cm이내.
	V	도 9	그릇 외벽 한 줄 또는 두 줄의 돌대가 돌려짐.

11) 김윤정, 2006, 『고려후기 상감청자에 나타난 원대 자기의 영향』, 『미술사학연구』, 한국미술사학회, 193~194쪽..

2) 문양

오리 신리 요지에서 수습된 도자편의 주된 장식기법은 상감기법과 상감기법+인화기법으로 기종에 관계없이 나타난다. 새롭게 등장하는 문양은 드물고 대부분 말기 상감청자의 퇴화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릇의 내 외면에 장식된 여러 가지 개체문양들은 나타난 위치와 비율에 따라 주문양과 종속문양으로 구분할 수 있다. 주·종속문은 소편이므로 다소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일반적으로 청자에 나타나는 성향에 근거하여 분류하였다. 주문양으로는 연당초문, 유문, 노문, 우점학문, 운문, 화문이 확인되며 종속문양으로는 뇌문, 초문, 여의두문, 연판문 등이 확인된다.

(1) 주문양

가. 蓮唐草文

대접 내면의 주문양으로 많이 나타나는 연당초문은 기면의 내측면에 4송이 또는 8송이의 연꽃송이를 한 두 줄기의 당초넝쿨로 연결하여 구성된 문양이다.¹²⁾ 연꽃은 끝이 뾰족한 꽃잎을 5~8장으로 나타내고, 흑백상감으로 표현된다. 그리고 14세기 청자의 제작 기술이 강진으로부터 전국으로 확산될 때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는 변형과 단순화의 변화를 보이며 『世宗實錄地理志』조사시대까지도 꾸준히 나타난 문양이다.¹³⁾

오리 신리 요지에서 확인되는 연당초문 대접은 총 4점으로 소편들이지만 대략적인 문양형태는 추정해 볼 수 있다.(삽도 2) 내면은 선문으로 3단의 문양대를 구획하고 구연 아래로 초문이 돌아가며, 연당초문이 주문양으로 배치된다. 화심은 원형 혹은 세잎크로버 형태로 표현되고 연꽃은 끝이 뾰족하고, 대략 6장의 꽃잎으로 구성되며 바깥 꽃잎과 안쪽 꽃잎은 이중의 흑백상감으로 장식된다. 그리고 꽃술은 표현되어 있는 것(삽도 2-3·4)과 없는 것이 있다. 연꽃 주위로 부드러운 곡선으로 표현된 당초넝쿨이 돌아가며 배경을 채우고 옅은 빼침 점(ノ)의 형태로 나타난다.(삽도 2-7·8) 그리고 내저면은 잔존하는 저부편으로 보아 내저원각이 없고 여의두문대가 돌아간다.(도 1) 외면은 백상감의 변형당초문이 장식되거나(삽도 2-1~4), 문양대 구획선과 원형의 2중선만이 돌려져 있다.(삽도 2-7·8)

오리 신리 요지 출토 도자편의 연당초문을 사진과 세부 그림으로 정리하면 <삽도 2>와 같다.

¹²⁾ 연구자에 따라 모란당초문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다.

¹³⁾ 강경숙, 2000, 『『세종실록지리지』 기록에 있는 자기소 도자편의 특징』, 『한국도자사의 연구』, 시공사, 278쪽.

<삽도 2> 오리 신리 요지 출토 도자편의 연당초문

			
1. 오리 신리 요지 연당초문편① (도 10)	2. 오리 신리 요지 연당초문편①의 세부 그림	3. 오리 신리 요지 연당초문편② (도 11)	4. 오리 신리 요지 연당초문편②의 세부 그림
			
5. 오리 신리 요지 연당초문편③ (도 12)	6. 오리 신리 요지 연당초문편③의 세부 그림	7. 오리 신리 요지 연당초문편④ (도 13)	8. 오리 신리 요지 연당초문편④의 세부 그림

나. 變形唐草文

변형당초문은 주로 그릇의 외면에 나타나는 문양으로 14세기대의 상감청자에 많이 등장한다. 변형당초문대 사이에는 원권 안에 절지국화문이 함께 배치된다. <청자상감연당초문‘정릉’명대접>외에도 무안 도리포에서 출토된 유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오리 신리 요지 출토 변형당초문은 연당초문 그릇의 외면에서 주로 확인되나 원권 안의 절지국화문은 확인할 수 없었다.

오리 신리 요지 출토 도자편의 변형연당초문을 사진과 세부 그림으로 정리하면 <삽도 3>과 같다.

<삽도 3> 오리 신리 요지 출토 도자편의 변형당초문

			
1. 오리 신리 요지 연당초문편①의 뒷면 (도 10)	2. 오리 신리 요지 연당초문편①의 세부 그림(변형당초문)	3. 오리 신리 요지 연당초문편②의 뒷면 (도 11)	4. 오리 신리 요지 연당초문편②의 세부 그림(변형당초문)

다. 柳文

원래 유문은 유로수금문에서 단순과 생략이 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양








이다. 유로수금문은 갈대, 수양버들, 물오리 등이 함께 표현되며 상감청자 전성기 부터 시대에 따라 그 형태를 조금씩 달리한다. 간지명 청자가 제작된 14세기대까 지 유행한 고려시대 대표적인 문양이다. 주로 대접이나 접시의 내측면에 장식이 며 매병에서는 버드나무와 갈대를 함께 시문하기도 한다.¹⁴⁾

한편, 오리 신리 요지에서 완형의 도자편 수습이 어려워 유로수금문이 어떠한 양상으로 표현되었는지 전체 모습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유문과 노 문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하겠다.

오리 신리 요지에서 유문이 장식되는 기종은 매병과 대접이다. 이 도자편에 나타나는 유문은 흑백상감기법으로 표현되는데 버드나무의 가지부분은 백상감 으로서, 잎은 흑상감으로 장식하였다. 잎을 표현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짧은 선으로 표현된 잎이 ‘八’자상으로 양 갈래로 벌어진 형태이고(삽도 4-1·2) 두 번째는 잎이 아래로 길게 늘어져 ‘1’자상으로 나타 나는 형태이다.(삽도 4-3~8) 이러한 현상은 강진 사당리 10호와 무안 도리포 해저유적에서 출토된 유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도 18·19)

오리 신리 요지 출토 도자편의 유문을 사진과 세부 그림으로 정리하면 <삽 도 4>와 같다.

<삽도 4> 오리 신리 요지 출토 도자편의 유문

			
1. 오리 신리 요지 유문편① (도 14)	2. 오리 신리 요지 유문편①의 세부 그림	3. 오리 신리 요지 유문편② (도 15)	4. 오리 신리 요지 유문편②의 세부 그림
			
5. 오리 신리 요지 유문편③ (도 16)	6. 오리 신리 요지 유문편③의 세부 그림	7. 오리 신리 요지 유문편④ (도 17)	8. 오리 신리 요지 유문편④의 세부 그림

14) 김현주, 2006, 주8) 앞의 논문, 65쪽.

라. 蘆文

노문은 대부분 대접의 내측면에 유문, 수금문 등과 함께 나타나 유로수금문의 형태로 표현된다. 하지만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오리 신리 요지의 도자편은 소편이어서 문양의 전체 구성은 알 수 없다. 그러나 노문편①의 경우, 어느 정도 편이 남아 있어 문양구성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삽도 5-1>의 왼쪽 부분에 보이는 짧은 흑백상감 된 초문이 확인되는 바 <청자상감유로수금문‘庚午’명대 접>(도 37)에서 보이는 것처럼 초문 위의 유문을 상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물오리 등의 수금문은 장식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오리 신리 요지에서 보이는 노문은 줄기와 흔히 갈대의 꽃으로 생각되는 부분은 백상감으로 장식하고, 잎은 짧은 단선으로 빠치듯이 끝을 뾰족하게 하여 흑상감으로 표현하였다. 바닥 부분은 흑백상감 되었는데, 물의 느낌을 주기 위해 약간의 굴곡을 표현하였다.¹⁵⁾

오리 신리 요지 출토 도자편의 노문을 사진과 세부 그림으로 정리하면 <삽도 5>와 같다.

<삽도 5> 오리 신리 요지 출토 도자편의 노문

			
1. 오리 신리 요지 노문편① (도 22)		2. 오리 신리 요지 노문편①의 세부 그림	
			
3. 오리 신리 요지 노문편② (도 20)	4. 오리 신리 요지 노문편②의 세부 그림	5. 오리 신리 요지 노문편② (도 21)	6. 오리 신리 요지 노문편②의 세부 그림

마. 雨點鶴文

우점학문은 운학문이 변형되어 나타난 문양이다. 운학문은 고려청자의 대접이나 완의 내면에 압인양각 혹은 양각기법으로 장식된다. 그러다가 12세기 중엽 이후에는 상감청자에도 장식되며 상감기법의 대표적인 문양소재로 자리 잡게 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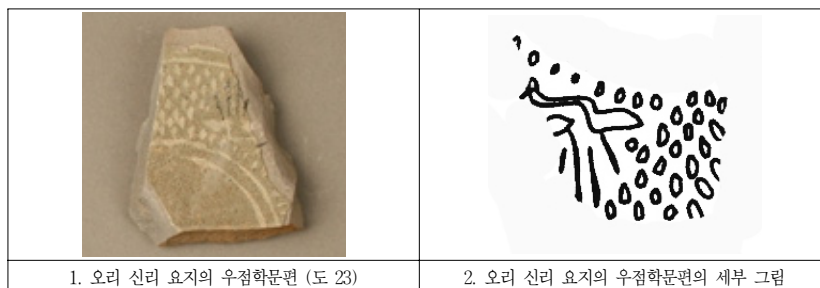
¹⁵⁾ 갈대는 원래 습지나 갯나, 호수 등의 물가에 자라는 식물로 간혹 이 부분을 땅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땅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물의 흐름을 표현한 것이라 판단된다.

다. 14세기가 되면 운학문은 구름이 비와 같은 형태로 표현되면서 우점학문이라는 새로운 문양이 등장하게 된다.

오리 신리 요지에 나타나는 우점학문은 학의 몸체는 인장으로 찍고 부리와 다리는 상감하였으며 운문은 우점으로 단순화되었다. 이러한 형태는 강진 사당리 10호, 연기 송정리, 정읍 수약동, 완주 장파리 요지 등에서 확인되고 학문의 하한 연대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정소공주묘에서 출토된 <분청상감초화문사이호>에서 찾을 수 있다. 이것은 정소공주의 몰년인 1424년의 하한연대를 가지며 이 시기를 마지막으로 학문은 사라진다.(도 33)

오리 신리 요지 출토 도자편의 우점학문을 사진과 세부 그림으로 제시하면 <삽도 6>과 같다.

<삽도 6> 오리 신리 요지 출토 도자편의 우점학문



바. 草文

초문은 보통 대접이나 접시 등의 측사면에 많이 나타나는 문양이다. 오리 신리 요지에서 확인되는 초문은 곡선으로 땅을 백상감하여 표현하고 그 위로 풀잎은 흑상감과 백상감을 교대로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다.

오리 신리 요지 출토 도자편의 초문을 사진과 세부 그림으로 정리하면 <삽도 7>과 같다.

<삽도 7> 오리 신리 요지 출토 도자편의 초문







사. 雲文

운문은 12세기 상감청자의 유행과 함께 나타난 문양으로 주로 학문과 결합하여 표현된다. 원래 운문의 형태는 영지형으로 긴 꼬리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운문은 시대를 더해 가면서 변형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운문의 꼬리가 짧아지고 원형에 가까워지면서 점점 소형화되어져 고려말~조선초 분청사기에서는 우점문, 삼원문, 육원문 등으로 변해간다.

이 변형된 운문은 대체로 초기 분청사기 요지에서만 나타나고 주로 대접과 접시에 시문된다. 오리 신리 요지에서 보이는 운문의 형태는 꼬리가 짧아지고 상감이 아닌 인화되어 나타난다. 잔존 편이 작아 전체적인 구성은 알기 어려우나 기면의 내측면에 드문드문 장식된 것으로 추정된다.

오리 신리 요지 출토 도자편의 운문을 사진과 세부 그림으로 정리하면 <삽도 8>과 같다.

<삽도 8> 오리 신리 요지 출토 도자편의 운문

			
1. 오리 신리 요지 운문편① (도 26)	2. 오리 신리 요지 운문편①의 세부 그림	3. 오리 신리 요지 운문편② (도 27)	4. 오리 신리 요지 운문편②의 세부 그림

아. 花文

화문은 한국도자기의 종류와 기종에 관계없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문양으로 특히 상감문의 본격적인 발생시기인 12세기 이후에 많이 나타난다. 이 시기에 등장하는 화문은 대부분 국화문이다. 그러나 상감기법으로 장식되던 국화문은 14세기 대에 인화기법으로 바뀌면서 그 형태도 변화한다. 원래의 국화를 표현하기보다는 꽃이라는 도식화된 모양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화문으로 일괄 지칭하고자 한다.

고려시대 국화문은 주로 절지형으로 정면에서 본 형태이거나 혹은 당초문과 결합하여 국당초문의 형태로 나타난다. 내저면 중앙이나 내외측면에 시문되며 간지명 청자의 주문양으로 쓰였다. 이러한 문양은 1420년 이후에 나타나는 인화문의 조형에 해당하는데 이는 14세기 후반의 강진 지역 이외 지역 사요가 1424년~1432년 사이에 활동한 『세종실록지리지』의 324개소의 자기소와 도기소의

전신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문양이다.¹⁶⁾

오리 신리 요지에서 나타나는 화문은 내저면, 내측면 등에 시문되어 있고, 그 형태에 따라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중앙에 작은 원을 두고 그 주위로 8장의 꽃잎이 돌아가고 사방으로 퇴화된 잎이 빠져 나온 형태이다.(삽도 9-1·2) 두 번째는 원으로만 구성된 화문으로 중앙에 한 개의 원이 있고, 그 주위로 6개의 원이 돌아가 꽃처럼 표현된 형태이다.(삽도 9-3·4) 세 번째 형태는 중앙에는 아무런 형태가 없고, 길고 가는 타원형 혹은 삼각형태의 꽃잎들이 일정한 중심을 두고 둥글게 돌아가고 있다.(삽도 9-5~8) 네 번째는 중앙에 원으로 화심을 표현하고 그 주위로 잎을 돌려 꽃을 표현한 것이다.(삽도 9-9·10) 이들은 모두 인화기법으로 시문되는데 이전의 상감기법에서 인화기법으로의 전환은 대량생산과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오리 신리 요지 출토 도자편의 화문을 사진과 세부 그림으로 정리하면 <삽도 9>와 같다.

<삽도 9> 오리 신리 요지 출토 도자편의 화문

				
1. 오리 신리 요지 화문편① (도 28)	3. 오리 신리 요지 화문접시② (도 7)	5. 오리 신리 요지 화문접시③ (도 8)	7. 오리 신리 요지 화문편⑤ (도 4)	9. 오리 신리 요지 화문접시④ (도 6)
				
2. 오리 신리 요지 화문편 ①의 세부 그림	4. 오리 신리 요지 화문접시 ②의 세부 그림	6. 오리 신리 요지 화문접시③의 세부 그림	8. 오리 신리 요지 화문대접 ⑤의 세부 그림	10. 오리 신리 요지 화문접시④의 세부 그림

(2) 종속문양

가. 草文과 雷文

초문과 뇌문은 주로 구연부의 내외면에 시문되는 문양으로 고려 간지명 청자에서부터 분청사기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장식된다. 이 문양은 기종에 관계 없이 구연부에 위치하는데 오리 신리 요지 도자편에서는 1점의 돌기문접시에서 뇌문이 나타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초문이 장식된다.(삽도 10-5·6) 초문은

¹⁶⁾ 박경자, 2002, 주7) 앞의 논문, 59쪽.

형태가 정돈되지 않고 어지러운 모습을 보인다. 옆으로 누운 짧은 단선으로 표현된다.

오리 신리 요지 출토 도자편의 초문과 뇌문을 사진과 세부 그림으로 정리하면 <삽도 10>과 같다.

<삽도 10> 오리 신리 요지 출토 도자편의 초문과 뇌문

		
1. 오리 신리 요지 연당초문편① (도 11)	3. 오리 신리 요지 연당초문편④ (도 13)	5. 오리 신리 요지 돌기문접시편 (도 9)
		
2. 오리 신리 요지 연당초문편①의 세부 그림(초문)	4. 오리 신리 요지 연당초문편④의 세부 그림(초문)	6. 오리 신리 요지 돌기문접시편의 세부 그림(뇌문)

나. 如意頭文

여의두문은 고려 상감청자에서 즐겨 쓰던 문양으로 대접과 접시의 내저면에 배치되거나 호, 병 등의 구연을 장식한다. 조선시대에는 초기의 관사명 분청사기에만 나타나고 1440년대 이후에는 나타나지 않는다.¹⁷⁾

오리 신리 요지의 여의두문은 내저곡면식 대접에서 많이 확인된다. 인화기 범으로 나타냈으며 백상감으로 비교적 세밀하게 표현하였다.

오리 신리 요지 출토 도자편의 여의두문을 사진과 세부 그림으로 정리하면 <삽도 11>과 같다.

다. 蓮瓣文

연판문은 연화문에서 파생된 문양이다. 이 문양은 연 꽃잎을 한 장 한 장 나열한 것으로 주문양보다는 종속문양으로 많이 사용된다. 고려시대 연판문은 연판 내에 작은 원문을 여러 개 두거나 초문 등을 새겨 넣은 경우도 있다. 이것이

¹⁷⁾ 편년유물에 나타나는 여의두문은 고려청자에서 조선초기 상감문양으로 이어지다가 인화분청이 발달한 이후 소멸하는 것으로 보인다. 正統3년(1438년)명 묘지와 함께 출토된 장흥고명 분청사기 단계에서 마지막으로 보이며, 그 이후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여말에는 세 개의 점을 삼각형 꼴로 혹은 세로로 나란히 찍어 배열된다. 그러다가 연판문은 더욱더 간략화 되어 술부의 표현이 직선으로 처리된다. 연판문 역시 여의두문과 마찬가지로 대접이나 접시의 내지면 문양대를 구성하며 외면의 굽 주변을 장식한다. 혹은 매병의 하단부를 장식된다.

오리 신리 요지 도자편의 연판문은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연잎이 3장으로 구성된 복판의 형태로 그 끝은 둥글게 표현되었다.(삽도 11-5·6) 두 번째는 연잎이 두 장의 복판형태이고 술부는 점을 종으로 찍어 나타냈다.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앞의 끝은 둥근 형태이다.(삽도 11-7·8) 세 번째 형태는 연잎이 2장의 복판으로 구성되고 술부는 일직선으로 표현하였다. 연잎의 표현은 첫 번째 앞은 5각형으로 끝이 뾰족하고, 두 번째 앞은 둥글게 표현되었다.(삽도 11-3·4) 모두 백상감기법으로 장식하였다. 내지면과 측면의 경계부, 외면의 굽 주변에 주로 배치된다. 오리 신리 요지 출토 도자편의 연당초문을 사진과 세부 그림으로 정리하면 <삽도 11>과 같다.

<삽도 11> 오리 신리 요지 출토 도자편의 여의두문과 연판문

			
1. 오리 신리 요지 여의두문대접(도 1)	2. 오리 신리 요지 여의두문대접의 세부 그림(여의두문)	3. 오리 신리 요지 화문접시(도 8)	4. 오리 신리 요지 화문접시의 세부 그림(연판문)
			
5. 오리 신리 요지 연판문대접(도 29)	6. 오리 신리 요지 연판문대접의 세부 그림	7. 오리 신리 요지 연판문편(도 30)	8. 오리 신리 요지 연판문편의 세부 그림

지금까지 살펴 본 오리 신리 요지에서 출토된 도자편의 문양을 시문위치에 따라 종합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오리 신리 요지 출토 도자편에서 확인되는 문양

문양	시문위치						매접	절사	기타	도면
	내			외						
	구연	추면	저면	구연	추면	파주면				
주문양	연꽃문	○					○			
	표화문					○	○			
	유문	○				○	○	○ 배병		
	노문					○	○			
	우점화문			○				○		
	초문					○	○			
	관문	○					○			
	화문	○	○			○	○	○		
중속양	선문	○			○		○	○		
	초문	○					○	○		
	노문							○		
	오의부문			○			○	○		
	연관문			○			○	○		

3) 제작기법

(1) 유태와 굵의 짝음새

오리 신리 요지에서 자기를 제작하는데 사용된 태토는 양질과 조질로 나눌 수 있다. 양질은 깨진 단면을 통해 확인해 보았을 때, 비교적 치밀하고 색조는 밝은 회색을 띠며 수비가 잘 이루어져 잡물이 소량 혼입되었다. 문양이 있는 상감 청자는 대부분 양질의 태토를 사용하였고, 이들의 유색은 밝은 연록색 계열을 띤다. 한편, 조질의 경우는 외관상 보기에다 사립과 거묵한 잡물이 확인되며, 깨진 단면의 색조는 양질의 도자편보다 어둡고 거친 느낌을 준다. 유색은 어두운 녹색 계열이다. 대접 I-B 기형에서는 조질의 태토만이 사용되었고 이외에는 기종, 기형에 관계없이 양질과 조질이 모두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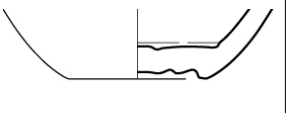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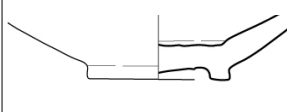

굽 접지면은 예리한 칼과 같은 도구를 이용하여 깨끗하게 깎아 정면하였고, 0.5cm 이상으로 비교적 넓은 편이다. 굵의 높이는 매우 낮고 단면은 'ㄱ'형이다. 유약은 기면 전체에 고루 시유한 뒤 굵 접지면을 닦지 않은 상태로 번조하였다. 그러나 대접 I-A형에서는 굵 접지면을 깨끗이 정면 한 경우도 종종 확인된다.

굽의 형태는 대접과 접시에 따라 그 형태가 조금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삽도 12)대접 I 형은 대부분 내경하는 다리굽(a)의 형태이고, 높이는 0.2~0.3cm 정도로 매우 낮다. 그에 반해 II형의 굵은 0.5cm 내외로 I형에 비해 다소 높다.(b)

접시에 나타나는 굵은 속굽(a)과 다리굽(b)으로 나눌 수 있다. 속굽은 외관상 보기에는 굵이 없는 것처럼 보이나 단면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굵 안 바닥을 'ㄱ'자상으로 깎아 성형한 굵의 형태를 말한다. 다리굽은 내저곡면식 접시, 중지형접시, 원형소접시 등 대부분의 기형에서 나타나나 그 수는 속굽이 나타나는 비율에 비해 적은 편이다.

대접과 접시의 굵 형태를 도면으로 제시하면 <삽도 12>와 같다.

<삽도 12> 오리 신리 요지 출토 대접과 접시의 굵 형태

대 접		접 시	
a 다리굽		a 속굽	
b 높은 다리굽		b 다리굽	








(2) 번조 기법

일반적으로 번조 방법은 갑번과 포개구이로 나뉜다.¹⁸⁾ 오리 신리 요지에서는 갑발이 확인되지 않아 갑번의 여부에 대해 알 수 없다. 그러나 내외면으로 받침 흔적 없이 구워진 그릇이 몇 편 확인되어 갑번의 가능성을 짐작해 볼 뿐이다. 번조 시 사용된 받침의 형태는 크게 두가지로 굵은 모래와 점토빚음받침이 있다. 점토빚음받침은 깨진 단면으로 확인되는 태토의 색과는 달리 검붉은 색조를 띤다.

대부분 내외면에 4개의 점토빚음을 받쳐 포개구이로 번조되었다. 간혹 접시는 3군데에서 점토빚음받침 자국이 확인되기도 한다. 가장 위에 있던 것과 아래에 있던 것은 내외면의 상태로 확인할 수 있는데, 맨 위에 있는 것은 내면에 받침 흔적이 없고 가마내부의 잡물이 붙어있다. 맨 아래에 두고 번조된 것은 외면에는 굵은 모래받침이 받쳐지고 내면에는 점토빚음받침이 받쳐져 있다. 소형 접시의 경우 내면에 받침 흔적이 없고 가마 잡물이 붙어 있으며 외면에 점토빚음받침을 받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포개구이 번조시 맨 위에 놓고 번조했을 것이다.

상감청자의 내면에는 받침흔적이 대부분 없어 번조시 갑번 혹은 포개구이 시 맨위에 올려졌고, 무문의 자기는 그 아래로 포개구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삽도 13, 표 3)

<삽도 13> 오리 신리 요지 출토 도자편의 번조방법과 번조받침

			
1. 도 1의 세부 내지면-점토빚음	2. 도 1의 세부 굽바닥-모래	3. 도 4의 세부 내지면-점토빚음	4. 도 4의 세부 굽바닥-점토빚음
			
5. 도 2의 세부 내지면-받침없음	6. 도 2의 세부 굽바닥-모래	7. 도 6의 세부 내지면-받침없음	8. 도 6의 세부 굽바닥-점토빚음

¹⁸⁾ 가마에서 그릇을 굽는 방식에 따라 갑번과 포개구이로 나뉜다.

- 갑번 ; 그릇을 갑발 안에 넣어 번조하는 방법이다. 불길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다양한 窯變, 가령 표면에 불순물이 앉거나 기형이 일그러지는 것 등을 예방할 수 있다. 御用之器 등 고급기명이 주 대상이지만 한번에 많은 수량을 생산할 수 없다.
- 포개구이 ; 기물을 위로 겹쳐 쌓아 번조하는 방식으로 보통의 일상기명을 대상으로 한다. 대량 생산에 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 굽과 내지면에 받침의 흔적이 남아 조절의 자기로 분류된다.

오리 신리 요지 출토 도자편의 변조 받침의 양상을 사진으로 제시하면 <삽도 13>과 같으며 대접·접시의 받침 양식은 <표 3>으로 정리했다.

<표 3> 오리 신리 요지 출토 대접과 접시의 기형에 따른 받침

받침 기종 형식	받침 기종 형식	내저면:받침흔적없음	내저면:점토빛음	내저면:점토빛음	내저면:받침흔적없음	받침흔적 없음
		굽바닥:굵은 모래	굽바닥:굵은모래	굽바닥:점토빛음	굽바닥:점토빛음	
대접	I-A	◎		○		
	I-B	○	◎	○		
	II			○		
접시	I		○	○		
	II				○	
	III			○	◎	
	IV				◎	○
	V	·	·	·	·	·

(◎:받침 양식이 2 종류 이상 나타날 때 좀 더 많이 사용된 경우를 나타냄)

III. 편년유물을 통해 본 제작시기의 검토

제작시기의 설정은 지표수습의 도자편을 위주로 분석을 시도하였기에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가장 많이 수습되는 대접과 접시를 중심으로 기형, 문양, 문양의 구도, 제작기법 등을 살펴 구체적인 연대가 있는 명문자기 혹은 전국에서 출토되는 명문청자와 비교 분석하겠다. 또한 문헌 기록을 기준으로 접근하여 각 요지 생산품의 양식적 특징과 구체적인 제작시기를 추정하고자 한다.

1. 편년유물

편년유물은 간지명 청자, 관아명 청자, 능명 청자, 연호명 청자로 나누어 살펴보고 편년유물은 각 소절에서 <표 4~6> 로 정리하였다.

1) 干支銘 靑磁

간지명 청자는 그릇의 내저면에 간지를 상감기법으로 새겨 넣은 청자로 이 들은 대접, 접시 등의 생활기명에 많이 나타난다. 지금까지 확인된 간지는 己巳, 庚午, 壬申, 癸酉, 甲戌, 壬午, 丁亥, 乙未 등 8간지가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간지명 청자의 제작은 대몽항쟁 이후 원 간섭기에 자기의 질적 하락을 막고자

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제작시기에 관해서는 13세기 후반, 13세기 후반~14세기 전반, 14세기 전반, 14세기 전반~후반에 이르기까지 학자들마다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필자는 14세기전반에 간지명 청자가 생산되었을 가능성을 두며, 편년유물을 설명하도록 하겠다.¹⁹⁾

간지명 청자의 받침은 ‘己巳’銘~‘甲戌’銘(1329~1334)과 ‘壬午’銘~‘乙未’銘(1342~1355)으로 구분되며 전자는 규석 받침을 중심으로 전면 시유를 하고 있으나, 후자는 질이 더욱 떨어져 모래받침과 태토 받침이 중심을 이루며 굽안바닥과 굽바닥의 釉를 닦아 내고 번조하고 있다.²⁰⁾

간지명 청자 중 오리 신리 요지 유물과 비교할 수 있는 편년유물은 <표 4>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4> 간지명 청자 편년유물

연대	번호	유물명	소장처(출토지)
기사명 청자 1329년	도 33	청자상감연당초문기사명대접	국립중앙박물관
	도 34	청자상감유로수금문기사명대접	해강도자미술관
	도 35	청자상감유로수금문기사명대접	삼성미술관 리움
	도 36	청자상감국화문기사명팔각접시	해강도자미술관
경오명 청자 1330년	도 37	청자상감유로수금문경오명대접	강진청자자료관
임신명 청자 1332년	도 38	청자상감우점학문임신명완	호림박물관
	도 39	청자상감국화문임신명팔각접시	개인
	도 40	청자상감초문돌기문임신명접시	동래고읍성지출토
갑술명 청자 1334년	도 41	청자상감우점학문갑술명접시편	강진 사당리 7호 일대
정해명 청자 1347년	도 42	청자상감유로수금문정해명대접	개인
	도 43	청자상감우점학문정해명접시	강진 사당리 7호 일대

19) 간지명청자의 제작시기에 대한 견해를 제시한 논문은 다음과 같다.

- 13세기 - 野守健 1944, 『高麗靑磁の研究』, 清閑舍; 최순우, 1978, 『高麗靑磁の編年』, 『世界陶磁全集』18, 小學館; 이희관, 1998, 『고려후기 기사명 청자의 제작년대에 대한 새로운 접근』, 『미술사학연구』217·218, 한국미술사학회; 최건, 2000, 『간지명청자의 제작시기와 제작요』, 『고려청자, 강진으로의 귀향-명문·부호 특별전』, 강진청자자료박물관; 정양모, 1991, 『고려청자』, 『고려청자명품특별전』, 국립중앙박물관; 구일회, 1994, 『고려시대 상감청자대접의 편년연구-간지명이 있는 접시들을 중심으로』, 『미술자료』54, 국립중앙박물관.
- 14세기 - 윤용이, 1933, 『한국도자사연구』, 문예출판사; 한성옥, 2001, 『고려 후기 청자의 기형 변천』, 『미술사학연구』232호, 한국미술사학회.

20) 한성옥, 2001, 주19) 앞의 논문, 57~96쪽.

2) 官衙銘 磁器

(1) ‘司膳’銘 磁器

‘사膳’은 고려시대 임금의 수라상을 관장하던 관부 ‘尙食局’에서 1372년에 司膳署로 개편되었다. 이러한 사膳서는 1417년의 기명에 司號을 새기라는 명령이 내려지는 시기까지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다 세종 5년(1423)년²¹⁾의 기록에서 이미 임금과 관련된 어찬을 사용방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423년 이전에 사膳서에 상납하는 자기의 제작은 끊어졌을 것이라 판단된다.²²⁾

‘사膳’명 청자는 전국의 요지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나타나는 관사명 자기로 ‘司膳’, ‘司’, ‘膳’이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다.

(2) ‘寶源庫’銘 梅瓶

보원고는 당시 덕천고와 같이 왕실 재정과 관련된 기관으로 전국의 장인들이 공급하는 布나 田稅를 거두어 주옥이나 비단 등 고가의 왕실물품을 관리하던 기관이다. 보원고는 원래 보원해전고였다가 1370년부터 보원고로 분리되어 설치된 관청으로 1391년에 다시 보원해전고로 대체된다. 따라서 이 매병의 제작 시기는 보원고의 운영시기인 1370년부터 보원해전고로 바뀌는 1391년 전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²³⁾

(3) ‘德泉(庫)’銘 磁器

덕천고는 의성고와 함께 1308년 충선왕 복위년의 재정관서 개편 때 신설된 왕실 재정기구로 창고 역할을 하던 덕천창으로 번갈아 개칭되다가 1355년에 덕천고로 명칭이 확정된다. 지금까지 전해지는 유물덕천창은 충렬왕비인 齊國大長公主의 湯沐邑을 그 재정기반으로 하여 설립되었고,²⁴⁾ 공민왕 5년(1355) 이후부터 덕천고라는 관명으로 정해진 후 조선개국 이후인 1403년에 內贍寺로 바뀐다.²⁵⁾

21) 『世宗實錄』 卷22 5年 10月 12日 己未條

傳旨于刑曹 前此盜關內司饗房御饌外 凡人供給之物者 亦以盜內府財物照律 誠爲未當 今後盜司饗房供凡人雜物者 以盜倉庫錢糧條論斷

(김현주, 2006, 주8) 앞의 논문, 21쪽 주47 참조)

22) 김현주, 2006, 주8) 앞의 논문, 21쪽.

23) 김윤정, 2004, 『고려말·조선초 관사명 매병의 제작시기와 성격』, 『흙으로 빛은 우리 역사』, 용인대학교박물관, 148쪽.

24) 박종진, 2000, 『조세 제도의 변화』, 『고려시기 재정운영과 조세제도』, 서울대학교출판부, 183~185쪽.

25) 『高麗史』 志 31 百官2.

德泉庫 忠宣王時 有德泉倉使 秩從五品·副使從六品·丞從七品 忠肅王 十二年 改爲德泉庫 罷員吏 十七年 復置員吏 委糾正監之 恭愍王 四年 罷祿官及糾正 置提舉別監

(4) ‘司醞署’銘 磁器

사온서는 술과 감주 등의 공급을 관장하던 곳으로 충선왕이 복위한 해인 1308년에 이루어진 관제 개편시 양온서에서 사온서로 바뀐 후에도 여러 번 명칭이 바뀌다가 공민왕 21년(1372)에 사온서로 확정된다.²⁶⁾ 조선시대에도 계속 주례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존속하다가 선조 36년의 기록을 마지막으로 그 명칭을 찾기 힘들며²⁷⁾ 정조 24년(1800)의 기록으로 보아 1603년 이후 ‘內資寺’에 병합된 것으로 보인다.²⁸⁾

(5) ‘恭安府’銘 분청사기

공안부는 1400년에 설치되었다가 1420년에 폐지된 관청으로 공안과 공안부명 분청사기들은 이들 20년 사이의 어느 때에 제작된 자기이다.²⁹⁾ 공안부명 분청사기 대접은 2점이 알려져 있는데 이 두 점은 각기 문양을 장식함에 있어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둘 사이의 관계가 주목된다. 한 점은 흑백상감기법을 이용하여 연당초문의 여운이 남아 있는 양상을 보여주고, 또 한 점의 대접은 분청사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도장을 이용하여 장식한 인화기법의 초기 모습을 보여준다.

관아명 청자 중 오리 신리 요지 유물과 비교 할 수 있는 편년유물은 <표 5>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5> 관아명 자기 편년유물

연대	번호	유물명	소장처(출토지)
사선명 청자 1372~1420년	도 44	청자인화국화문사선명대접	리움
	도 45	청자상감우점학문선명접시	연기군 송정리 요지 출토
보원고명 청자 1370~1391년	도 46	청자상감연유문보원고명매병	국립중앙박물관
덕천명 청자 1355~1403년	도 47	청자상감연유문덕천명매병	국립중앙박물관
	도 48	청자상감연유문덕천명매병	호림박물관

『太宗實錄』卷5 3年 6月 29日 乙亥條

· · · 罷德泉庫爲內瞻寺 義成庫爲內資寺 · · ·

(강경숙, 1986, 『분청사기연구』, 46쪽 주46, 주47 참조)

26) 『高麗史』志 31 百官 司醞署條 (김윤정, 2004, 주23) 앞의 책, 147쪽 참조)

27) 『太祖實錄』卷1 元年 7月 28日.(김윤정, 2004, 주823) 앞의 책, 147쪽 참조)

28) 김윤정, 2004, 주23) 앞의 책, 147쪽.

29) 『正宗實錄』卷6 正宗 2年 庚辰 11月 癸酉條에

尊上爲上王, 立府曰恭安 中宮府曰仁寧 以閔霽爲驪興伯 金士衡判門下府事, 李居易門下左政丞 趙璞參贊門下府事 鄭矩大司憲 李伯剛清平君 金需判恭安府事 · · · 이라 하여 1400년(정종 2년)에 설치되며, 『世宗實錄』卷7, 2年 庚子 3월 甲申條에 “革恭安府 并於仁寧府 增置少尹.”이라 한 것으로 보아 1420년 중궁부인 인령부에 병합 폐지됨을 알 수 있다.(강경숙, 2000, 『연당초문 변천과 인화문 발생-광주 도수리 분청사기 가마터 대접 도자편을 중심으로-』, 『한국도자사연구』, 시공사, 157쪽 주47 참조)

연대	번호	유물명	소장처(출토지)
을유사은서명청자 1345년	도 49	청자상감유문을유사은서명매병	국립중앙박물관
공안부명자기 1400~1420년	도 50	분청상감연당초문공안명대접	호림박물관

3) 陵銘 靑磁

(1) ‘正陵’銘 靑磁

정릉이라는 명칭은 공민왕의 왕비인 노국대장공주의 능의 명칭으로 ‘正陵’ 명 청자는 노국공주의 몰년인 1365년에서 공민왕의 재위기간인 1351~1374년과 관련하여 정릉명 청자는 1365~1374년 사이에 제작되었고 추정된다. 이러한 문양은 <분청상감연당초문공안부대접>에 나타나는 연당초문의 모체가 된다.

4) 年號銘 靑磁

(1) ‘至正’銘 靑磁

‘至正’은 1341~1367년까지 사용된 원나라의 연호이다. 그러나 공민왕 5년(1356년) 6월에 원나라 연호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至正’명 자기는 1341~1356년 사이에 제작된 것을 알 수 있다.³⁰⁾

능명, 연호명 편년유물은 <표 6>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6> 능명·연호명 청자 편년유물

	유물	번호	유물명	소장처
정릉명 청자	정릉명 청자 1365~1374년	도 51	청자상감연당초문정릉명대접	국립중앙박물관소장
지정명 청자	지정명 청자 1341~1356년	도 52	청자상감유로수금문지정11년명대접	일본대판시립 동양도자미술관소장

이상으로 살펴본 14세기대의 편년자료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기종은 대접, 접시, 매병 등이며 대표적인 생활용기인 대접과 접시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문양은 기종에 관계없이 간지명 청자의 주제인 蓮唐草文, 柳蘆獸禽文, 雲學文 등이 중심을 이룬다. 이 문양들은 2~3가지의 개체문양이 하나의 복합문양을 구성한 것으로 시문상태가 1340년대를 기준으로 변하고 있다. 즉, 1340년대 이전에는 사실적으로 정교하게 시문된 복합문양이 1340년대 이후에는 여러 가지 개체문양으로 해체되어 독립적으로 시문되거나 단순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민간 수요의 증가에 따른 대량생산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³¹⁾

³⁰⁾ 최건, 2000, 주19) 앞의 책, 86쪽.

2. 편년 유물과 오리 신리 요지 도자편의 기형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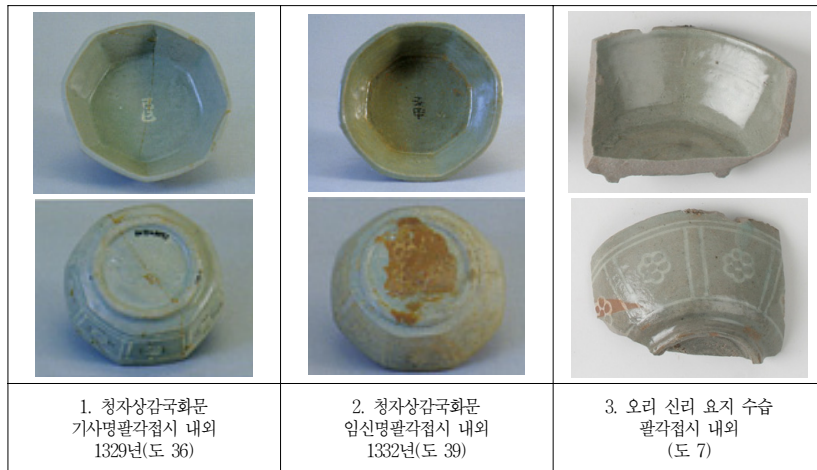
1) 각접시

각접시는 도범을 사용하여 제작한 접시로 측면의 수에 따라 육각 혹은 팔각 접시의 형태로 나타난다. 비교 가능한 편년유물은 해강도자미술관 소장의 <청자상감국화문‘己巳’명각접시>(삽도 14-1)와 개인소장의 <청자상감국화문‘壬申’명접시>(삽도 14-2)가 있는데 이 두 접시는 모두 내외면에서 육안으로 보기에 도 뚜렷한 각이 확인된다. 그리고 외면에는 각 면을 분할하는 선과 그 면 안에는 국화 절지문이 흑백상감 장식되어 있다.

그에 반해 오리 신리 요지의 각접시는 내면의 경우에는 일부 각이 어느 정도 살아 있으나 외면은 육안으로는 각의 유무를 판단하기 어렵고 손으로 만졌을 때 약간의 각이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외면에는 면의 분할선과 원으로 이루어진 화문이 인화되어 있다.(삽도 14-3)

이러한 각접시는 1400년대 이후의 가마로 판단되는 다수의 가마에서 각이 없어지고 외면의 면을 분할하던 선만이 남아 팔각접시의 흉내만을 내고 있다. 즉, 『세종실록지리지』시대의 분청사기 가마의 표지적인 기형의 하나로서 우묵한 원형의 접시로 이행되기 이전의 유물로 판단된다.³²⁾ 따라서 오리 신리 요지 출토 각접시는 14세기 중반 이후로 추정할 수 있다.

<삽도 14> 편년유물과 오리 신리 요지 출토 팔각접시편 비교



31) 박경자, 2002, 주7) 앞의 논문, 19쪽.

32) 강경숙, 2000, 주14) 앞의 논문, 297~298쪽.

2) 돌기문 접시

돌기문 접시는 14세기 후반의 강진 사당리 10호 요지에서도 수습되고 있다.(도 53) 편년유물로는 동래 고읍성지에서 출토된 <청자돌기문‘임신’명접시>가 있는데 이 접시는 구연 아래에 뇌문이 돌아가고 육안으로 보기에 뚜렷한 돌기문이 확인된다.(삽도 15-1) 반면에 오리 신리 요지에서 확인되는 돌기문 접시는 매우 소편이고, 돌대의 용기도 희미하여 이를 돌기문 접시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은 남으나, 필자가 판단하기에는 돌기문이 퇴화된 양식으로 판단하였고 구연 아래의 뇌문도 유사하다.(삽도 15-2)

따라서 오리 신리 요지의 돌기문 접시는 <청자돌기문‘壬申’명접시>의 제작시기인 1332년 이후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형식의 접시는 고려 최말기의 청자가마나 전국에 산재해 있는 조선 초의 분청사기요지에서 돌기대가 두 줄의 음각선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발견되고 있다.³³⁾

<삽도 15> 편년유물과 오리 신리 요지 출토 돌기문 접시편 비교



이상으로 오리 신리 요지의 도자편과 편년유물과의 기형 비교를 해 보았다. 기장의 요지에서 확인되는 도자편은 대부분이 소편이라 그 비교는 매우 한정적이었다. 오리 신리 요지에서 확인된 청자각접시는 편년유물의 뚜렷한 각이 퇴화된 형태로 나타났다.

그리고 청자돌기문접시 역시 동래고읍성지에서 출토된<청자돌기문‘임신’명접시>돌기보다 매우 퇴화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3. 편년유물과 오리 신리 요지 도자편의 문양 비교

14세기 후반의 상감청자와 15세기 초기 분청사기는 기형과 문양, 태도와

³³⁾ 이종민, 1994, 주6) 앞의 논문, 17쪽.

유색 그리고 번조방법 등이 전반적으로 비슷하여 청자와 분청사기로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다. 또한 이 시기는 고려에서 조선으로 왕조가 교체되는 혼란기로, 국가의 엄격한 통제에 따라 所에서 제작된 고려시대 상감청자나 조선시대 官窯産 백자의 뚜렷한 특징과는 달리 상감청자와 분청사기의 특징이 공존하는 양식적 과도기에 해당한다.³⁴⁾ 그러나 오리 신리 요지에서는 연당초문이 장식된 대접편이 몇 점 확인되어 이의 양식고찰을 통해 연대추정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유문, 노문, 우점학문의 형태 등을 고려하여 요지의 제작시기를 판단할 수 있다.

1) 蓮唐草文

오리 신리 요지에서 출토된 연당초문 도자편과 비교할 수 있는 편년 자료에 대해서 살펴보자.

절대연대를 가지고 있는 연당초문 대접 중, 14세기에 등장하는 가장 이른 유물로는 1329년에 제작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청자상감연당초문‘기사’명대접>(이하 연당초문‘기사’명대접)이 있다. 이 대접에서 나타나는 연당초문은 꽃잎 끝은 뾰족하고 화심은 세잎크로버 모양으로 면상감되었으며, 당초줄기는 반원형으로 위아래를 번갈아 가면서 옆으로 누운 ‘S’자형으로 이어져 있다. 줄기 역시 꽃잎과 마찬가지로 흑백이중 상감하였고³⁵⁾(삽도 16-1) 외면은 변형당초문이 백상감기법으로 장식되었다.(삽도 17-1)

다음으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청자상감연당초문‘正陵’銘대접>(이하 ‘정릉’명 대접)이다. 이 대접의 연당초문은 내면 주문양으로 등장하고, 공간을 남기지 않고 기면 가득히 흑백상감되어 배치되어 있다. 연화 잎은 흑백상감으로 장식되어 있고 7장의 꽃잎으로 구성되어 4곳에 배치되어 있고,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연당초문‘기사’명대접>처럼 꽃잎 이중선상감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러나 화심의 표현과 꽃술의 표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화심은 백상감된 원으로 나타나고 꽃술은 보이지 않는다. 당초넝쿨은 <연당초문‘기사’명대접>보다 생동감 있는 느낌을 주고 있다. 옆으로 누어진 ‘S’자형으로 굴곡진 줄기는 연화문과 연화문을 연결하는 듯 이어지고 그 줄기 주변으로 바람에 훑날리는 듯 잎들이 배경으로 가득 채워지고 있다.(삽도 16-2)

이러한 패턴의 연당초문은 <‘정릉’명대접>의 연당초문을 모체로 하고 있는 호림박물관소장<분청상감연당초문‘공안’명대접>(이하 ‘공안’명대접)까지 이어진다. ‘恭安’은 恭安府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 관청은 1400년에 설치되었다가

³⁴⁾ 박경자, 2002, 주7) 앞의 논문, 1쪽.

³⁵⁾ 김윤정, 2006, 주11) 앞의 논문, 77쪽.

1420년에 폐지되었다.³⁶⁾ 호림박물관 소장 <‘공안’명대접>에 나타나는 연당초문은 앞선 <연당초문‘기사’명대접>, <‘정릉’명대접>과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화문은 도식화되어 표현되며, 큰 잎은 좌우로 배치되고, 그 사이로는 작은 잎들이 배치되어 있다. 꽃잎 안에는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흑상감된 짧은 단선이 나타나고 있다. 당초줄기도 매우 간략화되어 연속된 느낌의 당초줄기가 아닌 단지 앞선 <‘정릉’명대접> 연당초문의 줄기만을 흉내 내었고, 잎은 도장을 이용하여 인화기법으로 장식되었다.(삽도 16-3)

마지막으로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 <분청인화국화문‘사선’명대접>(이하 ‘사선’명대접)(1372~1420)이 있다. 이 대접에 나타나는 문양은 구도를 제외한 전체적인 모습은 매우 다르다. 꽃잎의 형태는 원래의 모습에서 해체·추상화하여 연꽃의 형태는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연화문의 배경으로 기면을 채우고 있던 당초줄기와 잎은 툇니모양의 소국화문 도장으로 대신 채워져 있다.(삽도 16-4) 외면에는 변형당초문이 도식화되고 해체된 양상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보이는 평행사선문이 배치되었다.(삽도 17-3)

이상으로 연당초문 편년유물과 오리 신리 요지의 연당초문을 비교해 보았다. 오리 신리 요지의 연당초문은 <‘정릉’명대접>(삽도 16-2, 37-2)과 가장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내만하는 구연부 형태, 구연아래의 초문대의 형태, 흑백상감으로 표현된 연꽃, 연판의 표현, 당초넝쿨의 형태와, 당초잎이 점 형태로 변형된 것, 외면의 변형당초문 등이 매우 유사하다.³⁷⁾ 하지만 약간의 차이점도 확인된다.

문양대의 4단에서 2~3단으로의 변화, 내저면의 형태, 당초넝쿨의 잎은 <‘정릉’명대접>과 달리 점으로 혹은 삐침 점의 형태로 나타나고, 내면 전체를







³⁶⁾ 연당초문이 상감된 공안명대접과는 무늬 새긴 방법이 다른 粉靑印花菊花文恭安府銘대접이 두 점 알려져 있는데 이 대접들에는 국화문을 도장으로 찍고 있어 둘 사이의 관계가 주목된다. 무늬 새긴 방법이 다른 두 종류의 대접들이 공안부에 상납된 것으로 보아, 공안부가 존속하던 1400~1420년의 시기는 상감 기법의 연당초문의 여운이 남아 있는 한편 분청사기의 특징인 인화 기법이 발생하던 시기라는 것을 알 수 있다.(강경수, 2000, 주29) 앞의 책, 156~157쪽.)

³⁷⁾ 광주 도수리 1호에서 수습된 연당초문의 변형을 문양 형태에 따라 세분하면 연당초문은 <정릉명대접>의 연당초문을 모체로 했으며 문양대는 3단 구도에서 2단, 1단으로 생략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연당초문은 비교적 사실적인 표현에서부터 당초문의 간략화가 진행되다가 파도문으로 변형된다. 연화문은 화엽의 수가 줄어들어 등글등글한 원형의 형태가 되며 파도문으로 표현되던 당초문은 연화문의 단순·생략과 더불어 단사선형행문으로 변하더니 사실적인 조선시대 특유의 문양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파악하였다. (강경수, 2000, 주29) 앞의 책.) 그러나 오리 신리 요지에서는 2단, 혹은 1단 문양대구성이라던지 당초문의 간략화 현상은 진행되기 전에 요업이 중단된 것으로 판단된다.




가득 채우기 보다는 약간의 여백이 보인다. 또한<삽도 16-6> 도자편에서 보이는 꽃술의 표현과<삽도 16-5> 도자편의 화심의 표현은 <연당초문'기사'명대접>과 유사해 <'정릉'명대접>보다 오히려 이른 시기일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전체적인 구도와 배치, 연당초문의 표현과 외면의 문양 등을 살펴본 것을 오리 신리 요지의 연당초문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연당초문'기사'명대접>과 호림박물관 소장 <'공안'명대접>의 연당초문 보다는 <'정릉'명대접>의 연당초문과 좀 더 친연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³⁸⁾ 문양대의 구성, 듬성듬성 자리한 당초넝쿨, 꽃술과 화심의 표현 등을 미루어 보아 <'정릉'명대접>의 제작시기인 1365~1374년보다 약간 이르거나 같은 시기로 추정된다. 이상으로 살펴 본 편년 유물과 오리 신리 요지 연당초문과 변형당초문은 <삽도 16> ,<삽도 17>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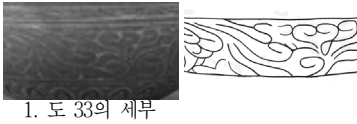




<삽도 16> 편년유물과 오리 신리 요지 출토 연당초문 도자편 비교

시기	편년유물	오리 신리 유물
己巳 1329	 1. 도 33의 세부	
正陵 1365 ~1374	 2. 도 51의 세부	 5. 도 10의 세부
		 6. 도 11의 세부
		 7. 도 12의 세부

³⁸⁾ 제작가마가 동일하지 않아도 이처럼 유사한 점이 많은 것은 14세기 후반~15세기 초기에 해당 되는 대접 내면의 연당초문이 한시기를 분명히 특징짓고 있다는 것을 시사해준다.(강경숙, 2000, 주29) 앞의 책, 182쪽.)

시기	편년유물	오리 신리 유물
		 8. 도 13의 세부
恭安 1400 ~1420	 3. 도 50의 세부	
司膳 1372 ~1420	 4. 도 44의 세부	

<삽도 17> 편년유물과 오리 신리 요지 출토 변형당초문 도자편 비교

시기	편년유물	오리 신리유물
己巳 1329	 1. 도 33의 세부	
正陵 1365 ~1374	 2. 도 51의 세부	 4. 도 10의 세부
		 5. 도 11의 세부
司膳 1372 ~1420	 3. 도 44의 세부	

2) 柳文

유로수금문은 상감청자 전성기부터 등장하여 시대에 따라 그 형태를 조금씩 달리하며 간지명 청자가 유행한 14세기대까지 유행한 대표적인 문양이다. 강진 사당리 10호 요지에서는 이러한 흑백 상감된 蘆文이나, 백상감만으로 장식된 노문(초문)이 나타나는 등 다양하다.

한편, 오리 신리 요지에서 수습된 도자편은 완형을 찾기가 어려워 柳蘆水禽文이 어떠한 양상으로 제작되고 표현되었는지 알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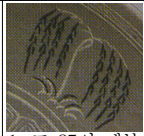

러나 1340년대를 넘어서면서 이들 갈대, 버드나무, 물오리 등이 독립적인 문양으로 나타나거나 단순, 생략되는 경향이 확인되고 있어 오리 신리 요지에서도 같은 현상이었을 것이라 판단된다.³⁹⁾ 따라서 오리 신리 요지에서 나타나는 유문과 노문도 이러한 상감청자의 말기현상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여러 개체 문양이 하나의 문양으로 표현된 것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크다.

오리 신리 요지 유문의 형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현상은 편년유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리움 소장 <청자상감유로수금문‘기사’명대접>(이하 유로수금문‘기사’명대접, 삽도 18-1)(1329), 강진청자자료관 소장 <청자상감유로수금문‘경오’명대접>(이하 유로수금문‘경오’명대접, 삽도 18-2)(1330), 호림박물관 소장 <청자상감연유문‘덕천’명대병>(이하 ‘덕천’명대병, 삽도 18-8)(1355~1403)은 ‘八’자형의 형태로 유문이 표현이 되었고, 개인소장 <청자상감유로수금문‘정해’명대접>(이하 유로수금문‘정해’명대접, 삽도 18-4)(1347), 일본대관시립도자미술관 소장 <청자상감유로수금문‘지정’11년명대접>(이하 ‘지정’11년명대접, 삽도 18-5)(1351),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덕천’명대병>(삽도 18-7),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청자상감연유문‘보원고’명대병>(이하 ‘보원고’명대병, 삽도 18-6)(1370~1391)에서 보이는 유문은 ‘1’자형의 유문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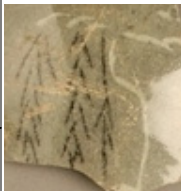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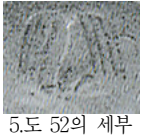












이상으로 살펴본 편년유물의 유문은 1340년대를 기점으로 하여 아래로 길게 뻗은 ‘1’자형의 유문이 등장하여 ‘八’자형의 유문과 일정기간 공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오리 신리 요지에서도 유문의 형태가 ‘八’자형과 ‘1’자형이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340년대 이후 어느 시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상으로 살펴 본 편년유물과 오리 신리 요지 유문은 <삽도 18>과 같다.

<삽도 18> 편년유물과 오리 신리 요지 출토 유문 도자편 비교

시기	편년유물	신리유물
己巳 1329	 1. 도 35의 세무	

³⁹⁾ 1340년대 이후에 제작된 <청자상감유문을유서운서명대병>, <청자상감우점학유문정해명접시>, <청자상감유문양은명편호>, <청자상감연류문덕천명대병>처럼 각각의 문양이 독립되거나 다른 문양과 함께 시문되면, 단순 생략된다. 이러한 문양의 변화는 강진 이외지역 청자에서도 공통되는 현상으로 복합문으로서의 유로수금문은 나타나지 않는 반면 단순 생략된 버드나무, 갈대, 물오리가 각각 독립되어 나타난다.(박경자, 2002, 주7) 앞의 논문, 48쪽.)

시기	편년유물	신리유물
庚午 1330	 2. 도 37의 세부 	 9. 도 14의 세부 
乙酉司鹽 署 1345	 3. 도 49의 세부	 10. 도 15의 세부 
丁亥 1347	 4. 도 43의 세부 	 11. 도 16의 세부 
至正11年 1352	 5. 도 52의 세부	 11. 도 16의 세부 
寶源庫 1371 ~1390	 6. 도 46의 세부  김현주, 2005, 주8) 앞의 논문, 67쪽.	 12. 도 17의 세부 
德泉 1355 ~1403	 7. 도 47의 세부 	 12. 도 17의 세부 
	 8. 도 48의 세부  김현주, 2005, 주8) 앞의 논문, 67쪽.	

3) 蘆文

편년자료에 보이는 노문은 유로수금문청자의 일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기사'명 대접에서 많이 보이며 1329년에 제작된 이들 문양은 갈대문 사이사











이로 花紋이 함께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오리 신리 요지 출토 노문은 화문이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화문이 함께 등장하기 위해서는, 화문과 갈대문의 줄기가 5개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3개의 줄기 밖에 확인되지 않는다.

그런데 1347년에 제작된 개인소장 <유로수금문'정해'명대접>(삽도 19-3)의 갈대 맨 끝 부분의 표현에 있어 오리 신리 요지와 유사점이 확인된다. 아래에서 길게 뻗은 줄기는 밖으로 반전하며 꺾이고 그 꺾이는 부분의 아래에서 새로운 줄기(혹은 잎)이 곡선으로 밖을 향해 뻗어 있는 모습이 유사하다.

따라서 리움과 해강도자미술관 소장의 <유로수금문'기사'명대접>(1329)(삽도 20-1·2)과 강진청자자료관소장 <유로수금문'경오'명대접>(1330)까지 등장하던 화문이 <유로수금문'정해'명대접>(1347)에 와서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 점, 줄기의 표현에 있어 유사한 점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오리 신리 요지는 <유로수금문정해명대접>의 노문과 더 친연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상 살펴 본 편년유물과 오리 신리 요지 출토 노문은<삽도 19>와 같다.

<삽도 19> 편년유물과 오리 신리 요지 출토 노문 도자편 비교

시기	편년유물	오리 신리 유물
己巳 1329	  <p>1. 도 34의 세부</p>	
	  <p>2. 도 35의 세부</p>	
丁亥 1347	  <p>3. 도 42의 세부</p>	  <p>5. 도 22의 세부</p>
		  <p>6. 도 20의 세부</p>

시기	편년유물	오리 신리 유물
至正11年 1352	 4. 도 52의 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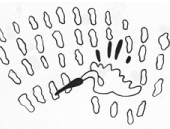


4) 雨點鶴文

우점학문이 확인되는 편년자료는 호림박물관 소장 <청자상감우점학문‘임신’명완>(이하 우점학문‘임신’명완, 삽도 20-1)과 해강도자미술관 소장의 <청자상감운학문‘갑술’명접시>(이하 우점학문‘갑술’명접시, 삽도 20-2), 강진 사당리 7호 요지에서 출토된 <청자상감운학문‘정해’명접시>(이하 우점학문‘정해’명접시, 삽도 20-3), 연기군 송정리 요지 출토 <청자상감운학문‘사’선’명접시>(이하 우점학문‘선’명접시, 삽도 20-4)가 있다. 모두 내저면에 우점문이 장식되었다. 임신·정해·선명 우점학문은 모두 전체적인 구성이나 구도에는 차이가 없으나 세부적인 표현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1332년에 제작된 <우점학문‘임신’명완>(삽도 20-1)에 나타난 우점학문은 조각칼을 이용하여 직접 문양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우점학문‘갑술’명접시>(삽도 20-2)는 우점문이 매우 가늘게 표현되고 상감기법으로 장식되었다. 학문은 부리와 날개의 꼬리부분은 흑상감으로, 몸통은 백상감으로 장식되었다. 사당리에 출토된 <우점학문‘정해’명접시>(삽도 20-3)의 우점문은 도장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가운데의 원권 주위로는 여의두문을 돌려 장식하였으며, 기벽으로는 유로수금문을 흑백상감 표현하였다. 학문은 <우점학문‘정해’명접시>와 유사한 형태이다. 반면에 연기군 송정리 요지 출토 <우점학문‘선’명접시>(삽도 20-4)는 오리 신리 요지와 마찬가지로 인화기법을 이용하여 표현하였고, 그리고 ‘(司)膳’이란 명문 주위로는 두 줄의 선문만을 돌려 마무리 하였다. 그리고 학문은 날개부분이 간단하게 표현되었고 꼬리는 흑상감 표현되었다.

오리 신리 요지의 접시에 등장하는 우점학문의 형태나 꼬리의 표현에 있어 갑술·정해명 청자와 유사하고 우점문은 상감으로 따로 조각한 것이 아니라, 열을 맞춰서 표현된 것으로 보아 상감기법보다는 도장을 이용하여 인화한 것으로 <우점학문선명접시> 유사하다. 따라서 오리 신리 요지의 우점학문은 丁亥 1347년과 司膳 1372~1420년대 사이에 제작되었다고 추정된다. 이상으로 살펴본 편년유물과 오리 신리 요지 출토 우점학문은<삽도 20>와 같다.

<삼도 20> 편년유물과 오리 신리 요지 출토 우점학문 도자편 비교

시기	편년유물	오리 신리 유물
壬申 1332	 1. 도 38의 세부	
甲戌 1334	 2. 도 41의 세부	
丁亥 1347	 3. 도 43의 세부	
司膳 1372 ~1420	 4. 도 45의 세부	 5. 도 23의 세부

4. 오리 신리 요지 도자편의 제작시기

이상으로 오리 신리요지에서 확인되는 도자편의 기형과 문양을 중심으로 하여 제작시기가 분명한 편년자료와 비교 분석하여 어떠한 유물과 더 친연성을 가지는지를 살펴보았다. 대접의 경우는 대략적인 시기를 판단하게 해주는 각접시와 돌기문을 중심으로, 문양은 연당초문·우점학문·유문·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오리 신리 요지 출토 도자편의 기형은 각접시와 돌기문 접시를 간지명 청자와 비교해 보았다. 그 도자편들은 편년유물들 보다 그 형태가 다소 퇴화된 양식을 보여주고 있는데, 각접시는 간지명에서 보였던 뚜렷한 각이 오리 신리 요지에서는 희미하게 나타나고 있다. 돌기문 접시도 마찬가지로 돌기의 표현이 상당히 무더지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양의 경우, 연당초문은 오리 신리 요지의 연당초문은 기사(1329)·정릉(1365~1374)·공안(1400~1420)명 대접에 표현된 연당초문 가운데서 특히 <정릉'명대접>과 가장 유사한 형태이다. 우점학문은 갑술(1334)·정해(134

<표 7> 오리 신리 요지 도편과 편년유물의 문양비교를 통해 본 제작시기

문 양	편 년 유 물			
	13세기 2/4	13세기 3/4	13세기 4/4	14세기 1/4
연 당 초 문 도 10 도 11 도 12 도 13	도 33 1329년 (기사명)	도 51 1365~1374년 (정릉명)	도 44 1372~1420년(사선명)	도 50 1400~1420년(공안명)
변 형 당 초 문 도 10 도 11	도 33 1329년 (기사명)	도 51 1365~1374년 (정릉명)	도 44 1372~1420년(사선명)	
유 문 도 14 도 15 도 16 도 17	도 35 1329년 (기사명) 도 37 1330년 (경오명) 도 43 1347년 (정해명)	도 52 1352년 (지정명)	도 47, 159 1355~1408 (덕천명) 도 46 1371~1390년 (보원고명)	
우 점 학 문 도 23	도 41 1334년 (갑술명) 도 43 1347년 (정해명)		도 45 1372~1420년((사)선명)	
노 문 도 22 도 20	도 35 1329년 (기사명) 도 34 1329년 (기사명) 도 42 1347 (정해명)	도 52 1352년 (지정명)		

7) · (사)선(1372~1420)명 자기와 비교했을 때 <‘정해’명우점학문접시>와 <(사)선’명우점학문접시>의 중간 단계에 해당한다. 유문과 노문도 간지명 청자와 관사명 자기와 비교 하였을 때 1350년대 이후의 어느 시기에 제작된 것이라 판단되었다. 그리고 연당초문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았을 때 오리 신리 요지는 I Aa 형식에 속하고 1365~1374년으로 편년되는 <정릉명대접>과 가장 유사함으로 강진 자기소가 해체되는 1370년대 이전에 제작활동을 했으리라고 본다.

따라서 오리 신리 요지의 도자편은 1350~1370년대 사이에 제작된 것이라고 추정된다.

지금까지 오리 신리 요지 출토 도자편과 편년유물의 문양비교를 해 보았다. 위 내용들을 총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IV. 맺음말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기장군 오리 신리 요지에서 수습된 도자편의 현황과 특징을 살펴 그 제작시기를 살펴보았다. 요지는 후대의 훼손으로 가마 유구의 현상 파악은 어려우나 수습된 다량의 도자편 분석을 통해 유적의 조업시기 및 도자편의 편년연구는 가능하였다.

오리 신리 요지에서 확인되는 도자편의 기형과 문양, 제작기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기형은 대접과 접시가 주류를 이룬다. 대접은 내저원각과 기벽의 형태에 따라 I · II형으로, 접시는 내저면과 기벽형태에 따라 I · II · III · IV · V형으로 분류하였다. 문양은 연당초문 · 변형당초문 · 유문 · 노문 · 우점학문 · 초문 · 운문 · 화문이 주된 문양을 이루며, 반면 종속문양으로는 초문 · 뇌문 · 여의두문 · 연판문 등을 들 수 있다. 굽의 형태는 대접의 경우 대부분 다리굽이며, 접시는 다리굽과 속굽이 함께 나타난다. 번조방법은 대부분 점토 빚음과 굽은 모래받침을 사용하여 포개구이하였고, 일부 도자편은 감변의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도자편의 제작시기는 기형 · 문양 · 제작기법 등의 분석을 통해 접근하되, 구체적인 연대를 가지거나 안정적인 층위에서 확인된 유물과의 비교, 문헌기록 등을 바탕으로 각 요지의 구체적인 제작시기를 추정하였다.

먼저, 오리 신리 요지의 각접시와 돌기문 접시를 편년유물과 살펴보았다. 각접시는 간지명에서 보였던 뚜렷한 각이 오리 신리 요지에서는 희미하게 나타

나고 있다. 돌기문 접시도 마찬가지로 돌기의 표현이 상당히 무더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 문양은 연당초문·유문·노문·우점학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연당초문은 <‘정릉’명대접>(1365~1374)과 가장 유사하고, 우점학문은 <‘정해’명우점학문접시>(1347)와 <‘(사)선’명우점학문접시>(1372~1420)의 중간 단계에 해당한다. 유문과 노문은 여러 간지명 청자와 관사명 자기와 비교하였을 때, ‘八’자형과 ‘1’자형 유문이 공존하는 것을 보아 1350년대 이후의 어느 시기에 제작된 것이다. 따라서 오리 신리 요지는 1350~1370년대 사이에 요업이 행해졌다고 판단된다.

한국 도자사에서 있어 지방에 대한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수준에 있으며, 특히 경상도 지역 도자사 연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 이러한 가운데 기장지역의 조사가 진행되었다. 오리 신리 요지는 비록 지표조사이지만 다각적인 도편분석을 통해 편년연구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확인되었다. 또한 본 연구는 기장지역의 도자사뿐만 아니라 경상도 지역에서 조사된 도요지 하나하나에 대한 성격을 밝히는데 그 방법론을 제시했다. 그리고 이는 오리 신리 요지를 통해 고려 말에 지방에서 생산된 요지의 사례를 찾음으로써, 경상도 지역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 투고일 2008년 1월 12일 | 심사완료일 2008년 2월 11일 | 게재확정일 2008년 2월 29일 ■

참고문헌

[史料]

『高麗史』
『高麗史節要』
『世宗實錄地理志』
『新增東國輿地勝覽』
『增補文獻備考』
『大東地志』

[報告書]

경남문화재연구원, 2007, 『기장 도예촌 조성을 위한 장안읍 일대 정밀지표조사』.
양산시·통도사성보박물관, 2004, 『문화유적분포지도-양산시』.
울산광역시, 2003, 『문화유적분포지도-울주군』.
_____, 2004, 『문화유적분포지도-중·남·동·북구』.
울산문화재연구원, 2005, 『울산 천전리 진현·압골 유적』.
울산발전연구원 문화재센터, 2006, 『울주 반곡리 유적』.
전남문화재연구원, 2005, 『곡성 구성리 도요지』.

[單行本]

강경숙, 1986, 『분청사기연구』, 일지사.
강경숙, 1989, 『한국도자사』, 일지사.
_____, 2000, 『한국도자사의 연구』, 시공사.
_____, 2005, 『한국도자기가마터 연구』, 시공사.
강대규·김영원, 2005, 『도자공예』, 솔출판사.
윤용이, 1993, 『한국도자사연구』, 문예출판사.
정양모, 1991, 『한국의 도자기』, 문예출판사.
정상기, 2006, 『충청지역 도사연구』, 서경.
기장읍지편찬위원회, 2005, 『機張邑誌』
기장군·기장군지 편찬위원회, 2001, 『기장군지』上·下.
부산광역시사편집위원회, 2002, 『부산지명총람』제8권.

부산직할시사편찬위원회, 1991, 『釜山市史』제4권.

[圖 錄]

- 강진청자자료박물관, 2000, 『고려청자, 강진으로의 귀향-명문, 부호 특별전』
국립광주박물관, 2006, 『천년의 세월 그 빛 날다』
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오구라 컬렉션 한국문화재』
국립해양유물전시관, 2003, 『무안 도리포 해저유물』
大阪市立東洋陶磁美術館, 1990, 『東洋陶磁の展開』
부산박물관, 2000, 『꽃과 도자』4.
_____, 2006, 『부산박물관 소장품 도록』
삼성미술관, 2004, 『Leeum-고미술』
용인대학교박물관, 2005, 『흙으로 빛은 우리 역사』
조선총독부, 1935, 『조선고적도보』18.
중앙일보사, 1981, 『청자』, 『한국의 미』④.
통도사성보박물관, 2002, 『양산의 역사와 문화』.
해강도자미술관, 2004, 『고려도자로의 초대』.
_____, 1990, 『해강도자미술관』.
호림미술관, 1997, 『호림미술관명품도록 I』.
_____, 1999, 『호림미술관명품도록 II』.
호림박물관, 2004, 『호림박물관 분청사기명품전』.

[論 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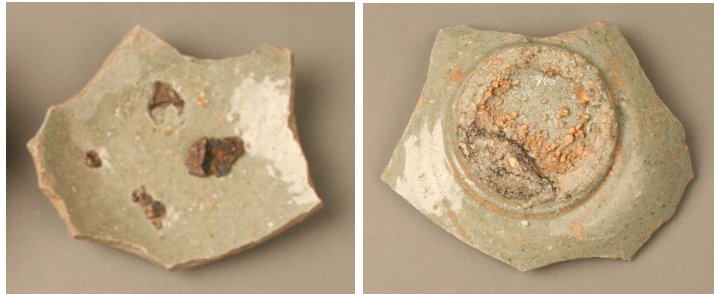
- 강경숙, 1985, 『분청사기의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_____, 1994, 『세종실록 지리지 자기소 도기소 연구 -충청도를 중심으로』, 『미술사학연구』202, 한국미술사학회.
_____, 1997, 『『세종실록지리지』 기록에 있는 자기소 도편의 특징 -경기도와 충청도의 5곳 가마터를 중심으로-』, 『고고미술사론』5, 충북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_____, 2001, 『광주 지역 가마출토 분청사기와 백자』, 『광주분원과 조선도자』, 경기도박물관.
_____, 1983, 『연당초문 변천과 인화문 발생 시고-광주 도수리 분청사기요지 대접 파편을 중심으로』 『이대사원』, 이대사학회.

- _____, 1993, 『연기 송정리 분청사기 대접-문양분석과 제작시기 시도』, 『미술사학연구』197, 한국미술사학회.
- _____, 1998, 『초기 분청사기 가마터 분포에 관한 일고찰 I』, 『태동고전연구』, 제10집, 태동고전연구소.
- 강순천, 1985, 『고려시대 청자매병의 연구』, 홍익대학교석사학위논문.
- 김윤정, 2003, 『고려후기에서 조선초기 상감청자에 나타난 원대 자기의 영향』, 홍익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
- _____, 2004, 『고려말·조선초 관사명 매병의 제작시기와 성격』, 『흙으로 빛은 우리역사』.
- _____, 2006, 『고려후기 상감청자에 보이는 원대 자기의 영향』, 『미술사학연구』 249호, 한국미술사학회.
- 김현주, 2005, 『고려말 조선초 상감청자 연구』, 동국대학교석사학위논문.
- 구일희, 1994, 『고려시대 상감청자대접의 편년연구-간지명이 있는 접시들을 중심으로』, 『미술자료』54, 국립중앙박물관.
- 박경자, 2004, 『14세기 강진 자기소의 해체와 요업 체제의 이원화』,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정원, 1968, 『경남지방도자기의 연구 -도요지 및 그 출토품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
- 정이석, 1990, 『無等山地域 粉靑沙器의 研究』, 단국대학교석사학위 논문.
- 이종민, 1992, 『14세기 고려상감청자의 연구』, 홍익대학교석사학위논문.
- _____, 1994, 『14세기 후반 고려상감청자의 신경향-음식기명을 중심으로-』, 『미술사학연구』201, 한국미술사학회.
- 이애령, 1993, 『인화기법 분청사기의 변천연구-충청남도 공주군 연기군의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석사학위논문.
- 이희관, 1998, 『고려후기 기사명 청자의 제작년대에 대한 새로운 접근』, 『미술사학연구』217·218, 한국미술사학회.
- 최 건, 2000, 『간지명 청자의 제작시기와 제작요』, 『고려청자, 강진으로의 귀향』, 강진청자자료박물관.
- 한성욱, 2001, 『고려후기 청자의 성격』, 목포대학교석사학위논문.
- _____, 2001, 『고려 후기 청자의 기형 변천』, 『미술사학연구』232호, 한국미술사학회.
- 황 구, 2006, 『기장의 분청사기와 매장문화재 활용 방안』, 『기장의 매장문화재 조사사례발표회』, 기장문화원.

〈참 고 도 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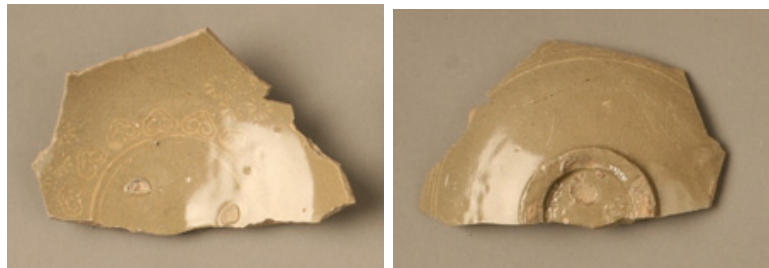
도 1. 청자상감대접편, 기장 오리 신리 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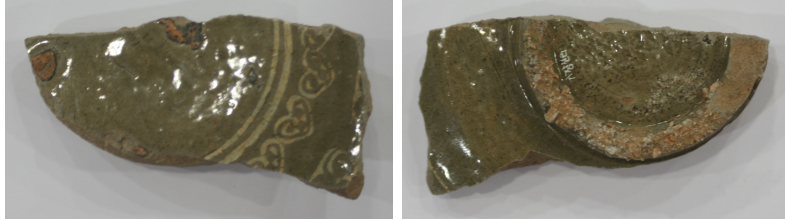
도 2. 청자무문대접편, 기장 오리 신리 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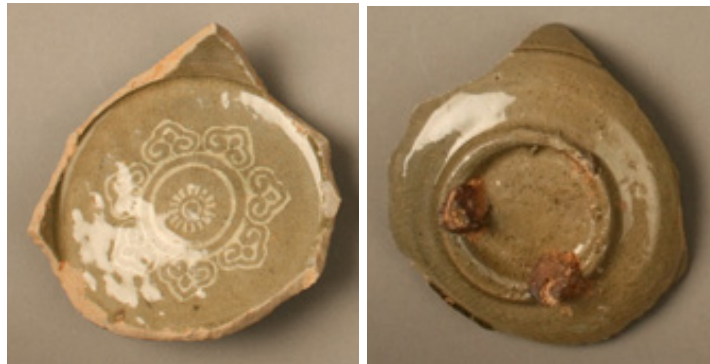
도 3. 청자무문대접편, 기장 오리 신리 요지



도 4. 청자상감대접편, 기장 오리 신리 요지



도 5. 청자상감접시편, 기장 오리 신리 요지



도 6. 청자무문접시편, 기장 오리 신리 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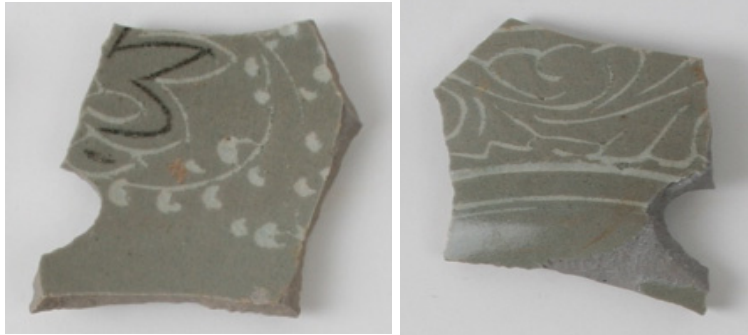
도 7. 청자무문접시편, 기장 오리 신리 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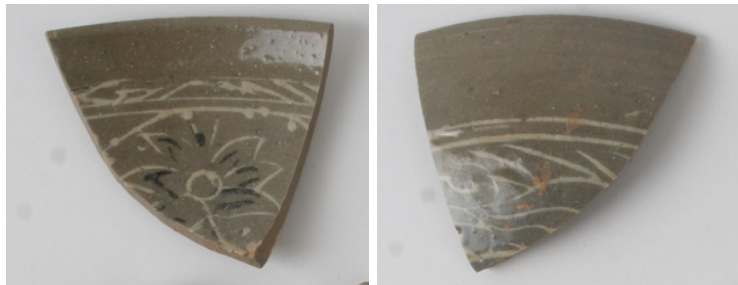
도 8. 청자무문접시편, 기장 오리 신리 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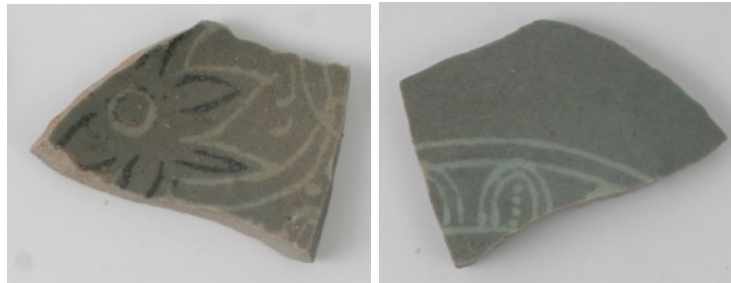
도 9. 청자돌기문접시편, 기장 오리 신리 요지



도 10. 청자상감연당초문대접편, 기장 오리 신리 요지



도 11. 청자상감연당초문대접편, 기장 오리 신리 요지



도 12. 청자상감연당초문대접편, 기장 오리 신리 요지



도 13. 청자상감연당초문대접편, 기장 오리 신리 요지



도 14. 청자상감유문매병, 기장 오리 신리 요지



도 15. 청자상감유문매병, 기장 오리 신리 요지



도 16. 청자상감유문대접편, 기장 오리 신리 요지



도 17. 청자상감유문편, 기장 오리 신리 요지



도 18. 청자상감유연문대접, 구경19cm,
무안 도리포 해저 출토, 국립해양유물전시관



도 19. 청자상감유로문대접, 구경20cm,
무안 도리포 해저 출토, 국립해양유물전시관



도 20. 청자노문대접편,
기장 오리 신리 요지



도 21. 청자노문대접편,
기장 오리 신리 요지



도 22. 청자노문대접편,
기장 오리 신리 요지



도 23. 청자상감운학문접시편,
기장 오리 신리 요지



도 24. 청자노문대접편,
기장 오리 신리 요지



도 25. 청자노문대접편,
기장 오리 신리 요지



도 26. 청자운문편, 기장 오리 신리 요지



도 27. 청자운문편, 기장 오리 신리 요지



도 28. 청자화문접시편,
기장 오리 신리 요지



도 29. 청자연판문편,
기장 오리 신리 요지



도 30. 청자연판문편,
기장 오리 신리 요지



도 31. 청자잔, 기장 오리 신리 요지 출토



도 32. 도지미 및 가마벽체편, 기장 오리 신리 요지 출토



도 33. 청자상감연당초문'기사'명대접, 1329년,
고7.0cm, 구경18.6cm, 국립중앙박물관



도 34. 청자상감유로수금문'기사'명대접, 1329년,
고8.0cm, 구경19.3cm, 저경 6.5cm, 해강도자미술관

도 35. 청자상유로수금문'기사'명대접, 1329년, 구경
19.1cm, 리움



도 36. 청자상감국화문'기사'명각접시, 1392년, 해강도자미술관



도 37. 청자상감우로수금문'경오'명대접, 1330년, 고6.7cm, 구경19.3cm, 저경6.9cm
해강도자미술관



도 38. 청자상감운학문'임신'명완, 1332년, 호림박물관



도 39. 청자상감국화문'임신'명각접시, 1332년, 개인



도 40. 청자상감초문'임신'명접시, 1332년
동래고읍성지출토



도 41. 청자상감운화문'갑술'명접시,
굽경6.6cm, 해강도자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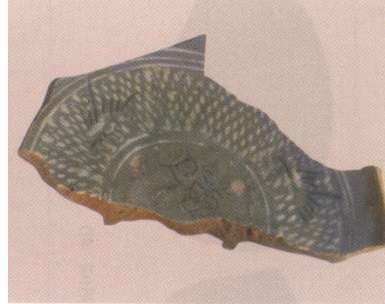
도 42. 청자상감유로수금문'정해'명대접편, 1347년,
잔고5.0cm, 지경7.0cm, 개인



도 43. 청자상감'정해'명접시편(표 4·17 삽도 20-4 참조),
1347년, 강진 사당리 7호 출토



도 44. 분청인화'사선'명대접,
1372~1423년, 리움



도 45. 분청상감운학문'선'명접시,
1372~1420년
연기 송정리 요지, 고려대학교박물관



도 46. 청자상감연류문'보원고'명매병,
1370~1391년, 고25.9cm, 국립중앙박물관



도 47. 청자상감연류문'덕친'명매병, 1355~1403,
고28.0cm, 구경4.5cm, 지경10.8cm, 국립중앙박물관



도 48. 청자상감연류문'덕천'명매병,
고27.8cm, 구경5.1cm 저경11.1cm, 호림박물관



도 49. 청자상감유문'을유사은서'명매병,
고30.4cm, 저경11.8cm, 국립중앙박물관



도 50. 분청상감연당초문'공안'명대접,
1400~1420년, 고6.0cm, 굽경5.6cm, 호림박물관





도 51. 청자상감연당초문'정릉'명대접, 1365~1374년,
고8.2cm, 구경20.1cm, 굽경6.0cm, 국립중앙박물관



도 53. 청자상감돌기문접시,
강진 사당리 10호 요지 출토, 강진청자자료박물관



도 52. 청자상감유노수금문'지정'11년명대접,
1351년, 구경18.4cm, 일본 동양도자미술관



도 54. 청자상감운학문'임신'명접시
1332년, 호립박물관

Abstract

A Study of production time on Sinri kiln of Ori Gijang

Hur, Sun Young

A research of earth surface was conducted by me from February to July 2007 on the subject of ancient formation of ceramic art villages at Gijang county, Busan. The research, though it was just a survey of earth surface, is a significant work since no research has been conducted till now concerning pottery at Gijang area and reported officially to the learned circles.

From the pottery located at Sinri village of Ori was discovered 'design of lotuses and arabesques,' an important pattern frequently appeared at 'Cheongja Sanggam Daejeop' (celadon porcelain inlaid bowl) in the 14th century. Also found are such patterns as 'design of willows,' 'design of reeds' and 'design of clouds and cranes'.

The mentioned pottery was marred by posterity, so observation of its remained structure has become difficult. However, I decided that with the recovered slices, chronological research of the three remains is worth trying, so I brought them up as the object of my study.

To determine the production period of the potteries, I first reviewed the kinds and techniques of production, together with patterns and abnormalities of the slices. Bowls and dishes were focal points of my survey as they are kinds that have been recovered most so far. Other items such as ceramic slices and kiln tools were also investigated. I have divided the remains into daily tableware and religious utensils. However, I have encountered limitation in studying the whole composition of pattern since most of the excavated slices were small sized. Nonetheless, I have classified them into main pattern and subordinate pattern based on general composition of patterns and their locations as well as their appearing ratio. As for production skill, I observed cutting shape of

‘Yutae’(special oil painting) and bottom of the slices, their firing technique, whether they are ‘Gapbeon’ (high-grade product) or ‘Pogae Gui’ fired one, and what material was used as prop. As a result of my observing the ceramic slices from Gijang area, I came to know that the most prominent features of the three potteries lie in ‘design of lotuses and arabesques’ celadon porcelains from Sinri potteries, and the utensil production for religious service.

Through the above analysis, along with study of documentary records and comparison with other remains that were recovered from stable stratum or bearing dates, I could surmise the specific production period of each pottery. In particular, I could estimate production period of ceramic kilns at Sinri villages of Ori by comparing them with the season, authorities, land and chronological era inscribed at celadon porcelain, as well as abnormalities and patterns of the remains.

As the result of my research I conclude that the pottery at Sinri village of Ori began production of ceramics at a period between 1350~1370.

Key words : Cijang, Sinri village of Ori, design of lotuses and arabesques, design of willows, design of reeds, design of clouds and cranes